

이보다더 완벽한 드라마가 있을까. 기적 쓴 벤투호

악연으로 얽힌 우루과이와 가나가 H조에 들어온 것도 한국의 16강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포르투갈을 상대로 기적 같은 역전승을 거두고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오른 대표팀이 어제 하루 휴식을 취하며 재출전했습니다.

김민재와 김영권 등 수비수들의 부상이 이어진 만큼, 체력 회복이 브라질전을 앞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골 넣는 수비수 김영권의 슬라이딩 동점 골로 기적의 서막을 연 대표팀. 후반 추가시간 손흥민과 황희찬이 합작한 역전 골에 대한민국이 들췄습니다.

세계랭킹 9위 포르투갈을 상대로 기적 같은 역전승을 거둔 대표팀은 하루종일 16강 진출의 여운을 만끽했습니다.

승리의 환호로 가득 찬 복도에 섰던 페드로 피지컬 코치까지 응원가를 따라 부를 정도로 분위기는 최고였습니다.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코리아!"]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테극전사들의 응원이 합창은 이어졌습니다.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코리아!"]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이란 1차 목표를 이룬 선수들의 표정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경쟁과 응원이 동반된 가운데 한일 양국 모두 16강에 올랐다. 먼저 16강행을 확정된 아시아축구연맹(AFC) 소속 호주는 4일 16강전에서 아르헨티나에 제 탈락했다. 이제 일본이 6일 새벽 0시 크로아티아를, 4시간 후 한국이 브라질을 상대한다.

한국과 일본이 이번에도 나란히 선



전해 승리를 거두면 오는 10일 새벽 0시 사상 최초의 월드컵 본선 한일전이 자라 첫 8강전이 펼쳐진다.

조별리그 3경기를 치르면서 대표팀은 김민재와 김영권 등 수비수들의 잇따른 부상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16강전까지 이들 밖에 휴식일이 없는 만큼 선수들은 어제 하루 훈련을 하지 않고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세계 최강 브라질을 상대하기 위해선 체력 회복이 급선무입니다.

사기가 충천한 우리 대표팀은 오는 6일 새벽 4시, 이곳 974 스타디움에서 브라질과 운명의 16강전을 치릅니다.

최만식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모더나 오미크론 변이(BA.4/5) 대응 2가 백신 긴급사용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더나코리아(주)의 코로나19 오미크론주 변이(BA.4/5) 대응 백신 '스파이크박스2주(엘라소메란, 다베소메란)'에 대해 12월 2일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이번 긴급사용승인은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오미크론 대응 백신 추가접종 확대 계획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해당 백신의 도입을 요청해 이뤄졌다.

이 백신은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주, BA.4와 BA.5 공통부분) 각각의 항원을 발현하는 mRNA를 주성분으로 하는 2가 백신이다.

효능·효과는 '18세 이상에서 코로나19의 예방'이며, 용법·용량은 '기초접종이나 추가접종을 받은 후 최소 3개월 이후 0.5mL를 추가접종'이다.

이번 긴급사용승인한 백신은 미국과 유럽에서 긴급사용승인 또는 허가된 백신과 같은 원료의약품을 외국에서 공급받아,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지스)에서 충전·표시 등의 공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국내 제조 백신이다.

식약처는 모더나코리아(주)가 스파이크박스2주(엘라소메란, 다베소메란)의 긴급사용승인을 위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효과성과 안전성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감염내과, 약학, 예방의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5인)에게 자문했다.

전문가들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가 미국과 유럽이 BA.4/5 대응 백신을 검토하기 위해 활용된 자료와 동일하고, 우리나라가 해당 자료에 기반해 긴급사용승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BA.4/5 대응 2가 백신이 그간 허가받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과 mRNA 플랫폼, 투여 용량, 제조방식 등이 같은 점을 고려해 해당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인정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 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를 개최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법적 요건 충족 여부 ▲전문가 자문 결과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을 위한 신속 도입 필요성 등을 심의하여 긴급사용승인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긴급사용승인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추가로 국내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긴급사용승인된 백신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사용 과정에서 부작용 정보 수집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에도 더욱 힘쓰겠다.

또한,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식약처는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의료제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는 등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성지기자

경북도 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전남도, 태양광주차장 설치 국비 5억 확보

전라남도는 환경부 주관 2023년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 사업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태양광을 설치한 사업이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 사업은 환경부에서 공공부문 탄소중립 조기 달성과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이 소유한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경부에서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현장조사 등 평가를 실시해 사업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국비 50%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도청 내 호수주차장(B주차장)의 태양광 설비가 노후하고 시설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철거 후 신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 내년 사업비로 국비 5억 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도비 5억 원을 추가해 10억 원을 들여 350kw 발전량 규모의 태양광 시

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350kw로 설치되면 연 46만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를 지난해 에너지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6천500만 원의 에너지 예산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 에너지 단가 상승을 감안하면 더 큰 효과가 기대된다.

전남도청 내 태양광 시설은 총 8개소 1천322kw 발전량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도청 내 총 전기사용량 656만 5천kw로 9억 2천만 원의 전기료가 발생했고, 이 중 태양광 시설에서 생산한 전기량이 157만 7천kw로 2억 1천900만 원을 충당했다. 이는 전체 전기사용량의 23%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길용 전남도 회계과장은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업에 선정된 만큼, 조속히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해 늘어나는 에너지 비용을 더 절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우리나라 22번째

경상북도는 '한국의 탈춤'(Talchum, mask dance drama in the Republic of Korea)이 지난 달 30일 오전(모로코 현지시간)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모로코(수도 라바트)에서 열리고 있는 제1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신청한 '한국의 탈춤'을 등재키로 결정한 것이다.

지난 11월초 무형유산위원회 산하의 평가기구로부터 '등재권고'를 받아 등재가 유력시 됐는데, 이번에 최종 결정됨으로써 우리나라는 22건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

등재 결정된 '한국의 탈춤'은 13개의 국가무형문화재와 5개의 시·도 무형문화재로 구성된 총 18개의 탈춤 종목이다.

사회의 여러 부조리와 모순을 춤, 노래, 말, 동작 등을 통해 역동적이

고 유쾌하게 풍자하면서도 화해의 춤으로 마무리함으로써 크게 하나가 됨을 지향하는 상호 존중의 공동체 유산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한국의 탈춤에는 도내에서 전승·보존돼 온 '하회별신굿탈놀이'와 '예천청단놀이'가 포함돼 있어 경북도로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인 '하회별신굿탈놀이'는 안동 하회마을에서 마을공동체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12세기 중엽부터 주민들이 행해왔던 탈놀이이다.

놀이에 사용되는 탈은 주지탈 등을 포함해 모두 10종 11개이며, 각시의 무동마당·주지마당·백정마당·함미마당·파계승마당·양반과 선비마당·혼례마당·신방마당의 8마당으로 구성돼 있다.

경북도에서 지정된 무형문화재인 '예천청단놀이'는 예천 지역에서 전승돼온 국내에선 보기 드문 무언극(無言劇)으로서, 독특한 형태의 주지 판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키로 만든 탈을 사용하며, 광대 북 놀음·양

반놀이·주지놀이·지연광대놀이·중놀이·무동놀이 등 6마당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이번에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하회별신굿탈놀이'와 '예천청단놀이'가 포함돼 온 '하회마을'은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등 유산 분야의 3대 카테고리 모두 보유 역사마을이 됐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 의미가 더욱 크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패기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통문화를 소중히 지켜온 지역 주민들과 등재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이다"라며 "경북은 명실공히 세계유산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으며, 앞으로, 국내 세계유산 최다 보유 지역이라는 명성에 걸맞도록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세계유산 보존·관리의 생태계를 혁신하고, 세계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허복 경상북도의회, 통합방위협의회의 조례 개정안 발의

기관명칭 변경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으로 협의회 운영의 효율화 도모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허복 의원(구미)이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11월28일(월)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허복 의원은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의는 제50보병사단장, 경상북도 경찰청장 등 20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들 기관 중 최근 기관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잘못된 표현 개정 등을 통해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

다.”고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하여 국군·경찰·예비군·민방위대 등의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으로 특별시·광역시·도 등에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를 두도록 「통합방위법」에 규정되어 있다.

한편, 금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12일 경상북도의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대구시의회-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공동 주최 포럼 개최

저소득가정 대상, 아동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 불균형 해소위해

대구광역시의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대구지역 저소득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불균형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자 12월 1일(목) 오후 3시 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대구시 저소득가정 아동 교육기회 보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대구지역 저소득가정 아동의 교육격차 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준비되었다. 대구시의회 운영에 의원의 '대구 지역별 교육격차에 따른 지역불균형 해소방안' 주제 발표 후, 유영준 대구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신소희 아시아교육협회 대표의 주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운영에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남구2)은 “현재 지역에도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아이들에 대한 교육격차가 존재하고 있다”며, “복지현장에서의 지원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격차 및 교육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천적·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포럼을 개최하게 된 배경과 취지에 대하여 설명했다.

주제 발표 후, 최흥섭 대구교대 교수의 진행으로 3명의 토론자가 포럼 주제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한 후 참석자들에게 질의응답의 시간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만규 의장은 “이번 포럼으로 대구시 교육격차 실태 공유 및 논의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기회 보장에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쟁겼다!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이 제310회 정례회 2023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임금 확대, 인력 충원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예산을 챙기기 위해 부산시 재정관에게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나가 주목을 받았다.

이종환 의원은 질의에 앞서, 23개 유형의 사회복지시설 연합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를 언급하며,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대폭 삭감하고, 시간의 근무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근무여건도 매우 열악한 차디찬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라며, “이 성명서에는, 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분들의 울부짖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고 평가했다.

합으로써, 불과 1년 만에 부산시의 정책이 퇴보하고 말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①장애인거주시설, ②정신요양시설, ③건강가정지원센터, ④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⑤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에 대해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 재정관을 질타하며 그 대안으로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국비가 추가로 교부될 것이므로 내년 1월 1일부터 가이드라인 100%에 맞게 기본급을 지급하고, 만약 추가 국비가 덜 내려올 경우 그 금액만큼은 부산시가 추경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으며, 재정관으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확답을 이끌어내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소관국인 여성가족국으로부터 승인받은 대로 가족수당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시설인데, 마치 시설에서 자의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것처럼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질타하며, “소관국인 여성가족국의 방침을 존중하여, 기본급을 가이드라인 100%만큼 맞춰

지금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재정관의 긍정적 대답을 이끌어내었다.

이어 이 의원은, 인력 충원도 계획에 못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에는 2023년에 100명의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음에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75명에 대한 충원예산만 담겨 있다.”라고 날을 세웠으며, 이에 대해 재정관은, 시의 재정여건과 인력충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인력 충원은 인력을 무작정 늘려달라는 무리한 요구가 결코 아니며, 최소한의 법정인력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필수인력을 충원해달라는 기본적인 요구임을 강조하며 집요하게 질의한 결과로 보인다.

향후 이종환 의원은, 올해에서야 비로소 달성된 ‘기본급 100% 지급’과 ‘인력 충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분들의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챙겨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2023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마무리했다.

송진진/기자

종로구의회, 2023 본예산 심의를 위한 현장방문

종로구의회는 지난 30일, 2023 본예산 심의를 위한 현장 방문을 추진했다. 현장 방문에는 라도균 의장, 이광규 부의장, 이시훈 운영위원장, 이용주 행정문화위원장,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 김종보 의원, 박희연 윤리특별위원장이 참석했다.

현장 방문지는 고양시에 위치한 한강다목적운동장과 종로문화관 수

장고로 의원들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예산 편성의 필요성 및 금액의 적정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예산은 2일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거쳐, 8일~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의를 거친 후 13일(화)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된다.

라도균 의장을 포함한 종로구의회 의원들은 “해당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우리구 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지 꼼꼼히 따져 심의하겠다”며 “또한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광수/기자

광주광역시의회, 너도 나도 받는 국제안전도시인증!

인증에 집중하기 보다 실질적인 시민 안전 확보 대책을 강구해야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운 의원(북구2/더불어민주당)은 12월2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시민안전실에 대한 23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광주광역시 재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에 대해 꼬집었다.

정다운 의원은 “국제안전도시

인증은 하는 국제안전공인센터(ISCCC)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소재한 국제비정부기구로 보건 및 건강 등의 생활안전 분야에 국한된 검증 등을 통해 안전인증을 하고 있다.”며, “광주광역시는 올해 9월20일 재공인 선포식을 갖고 안전도시 광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연이은 참사로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진 지금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제안전공인센터의 안전도시 공인은 우리나라에서 22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을 정도로 ‘봄’이 일었던 공인.”이라며, “2016년 최초 공인 이후 5년에 한번씩 받아야 하는 재공인을 위해 수억 원의 세금이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가 안전도시라는 타

이들에만 집중하기 보다 실질적인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국제안전도시로써 위상을 위한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민간 재해경감국제전략사무국의 ‘방재안전도시인증’ 등 공신력 있는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정다운 의원은 “광주 학동 붕괴참사와 화성동 붕괴참사에 이어 이태원 참사를 겪으며 시민의 안전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어느 때보다 높다.”며, “집행부는 ‘국제공인’이라는 그럴듯한 명칭을 다는 데에 행정력과 예산을 소비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재해, 재난 등에 철저히 대비하는 데에 더욱 집중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수/기자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세계 최초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더민주, 수원3)이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세계 최초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 기념 토론회’를 열어 어린이 해방선언의 의미를 짚어보고, 국내외에 알려 함께 실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주영 어린이문화연대 상임대표의 기조강연으로 시작해, 이 대표는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에 선포한 ‘어린이 해방선언’은 세계에서 최초라는 의미를 넘어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어른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선언”이라고 운을 띄우며,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사업 의미와 성과’와 ‘어린이해방선언 100주년 의미와 과제’에 대해 강연했다.

이어 박길수 방정환도서관 관장은 어린이 해방선언의 역사적 배경과 사상사적 배경에 대해 다른 ‘일제 강

점기시대 3.1만세운동 이후 어린이 해방선언 및 소년운동의 전개’를 주제로 발표했다.

장정희 방정환연구소 이사장은 ‘1923년 세계 최초 어린이 해방선언 해설 및 역사적 의미 고찰’에 대해 발표하며, “어린이 해방선언은 나만 잘 살겠다는 이기주의적 삶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돌아보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자는 착취와 억압을 극복하고 평등한 세상을 지향하는 어린이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김봉수 남창초등학교 교장은 ‘사레로 본 어린이들의 놀이문화’를 주제로 수원특례시내 초등학교 어린이의 생활을 발표하며,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별 어린이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조사·연구를 총괄할 수 있는 단위의 기관이나 부서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정우 경기도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총괄간사는 추진위원회 사업 및 조직계획안을 발표하며, “2023년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이 지나쳐 온 어린이날 100년간의 의미를 기억·성찰하고,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설계·전망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황 부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경기도의 미래이며, 경기도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단순히 논의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부위원장은 지난 제363회 임시회에서 아동에 대한 여가 보장하는 정책추진을 강화하고자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조혜영/기자

충남도의회,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 노인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가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 노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용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노인 증가로 초기 치매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 노인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노인이나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치매관리기관 설치 및 지원 ▲경증치매노인 관련 연구·조사 ▲경증치매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치유농업 등을 연계한 치매관리 등 전반적인 경

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대한치매학회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의 10~15%가 매년 치매로 전환되며,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10년동안 3.2배로 급증했다.

김용규 위원장은 “치매는 초기 관리가 중요한 만큼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노인의 초기 관리가 필요하다”며 “치매 발생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부터 치매 관리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개인은 물론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34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정근/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박류석.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 서울 가 50146 | 등록일 :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대전 (112)	문화부:대전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대전 (113)	부동산부:대전 (117)
	경제부:대전 (114)	오피니언부:대전 (118)
	스포츠부:대전 (115)	지방부:대전 (119)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셋길로 534 4층 411호

경기본사 :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카타르 월드컵' 포르투갈전 광화문광장 거리응원 안전대책 지원

한파 대비 참여시민 방한준비 철저 당부, 비상대피 쉼터 확대 등 한파대책 마련

서울시는 '22년 12월 3일 0시 대한민국 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포르투갈전)을 맞아 붉은악마의 거리응원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3차 응원전에도 지난 1·2차전 거리응원과 같이 현장종합상황실 운영 및 종로구청,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한 현장 인파 관리와 교통 통제, 응급 구조 지원 등 거리응원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계속된다.

지난 1·2차전 거리응원은 참가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더불어 서울시와 종로구청,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개최된 바 있다.

이번 3차 응원전에도 서울시와 종로구, 경찰, 소방인력이 투입되어 주최측(붉은악마) 안전요원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인파관리 및 교통 통제, 응급 구조 지원체계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사고의 사전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인명피해 방지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3차 거리응원전은 한파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는 참여 시민들이 방한복, 장갑, 담요 등 방한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최측과 협의하여 저체온증 등의 환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차 응원전에 운영했던 한파대비 비상대피공간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주최측에서는 핫팩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한파 대비 비상대피공간은 지난 2차전 10명 수용 규모에서 대폭 확대하여 80명 규모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서측에 텐트 4동을 연결하여 마련할 계획이며, 난방기구 등을 비치하고 구급인력이 상주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차 응원전과 같이 많은 시민들이 응원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12. 2.(금) 21시부터 행사 종료 시까지 광화문광장과 가장 인접한 세종문화회관 정류소(ID : 01272, 01126)는 안전을 위해 임시 폐쇄하고, 해당 정류소를 경유하는 버스 노선은 모두 무정차 통과한다. 지하철 5호선은 광화문역의 승강장 혼잡수준을 모니터링하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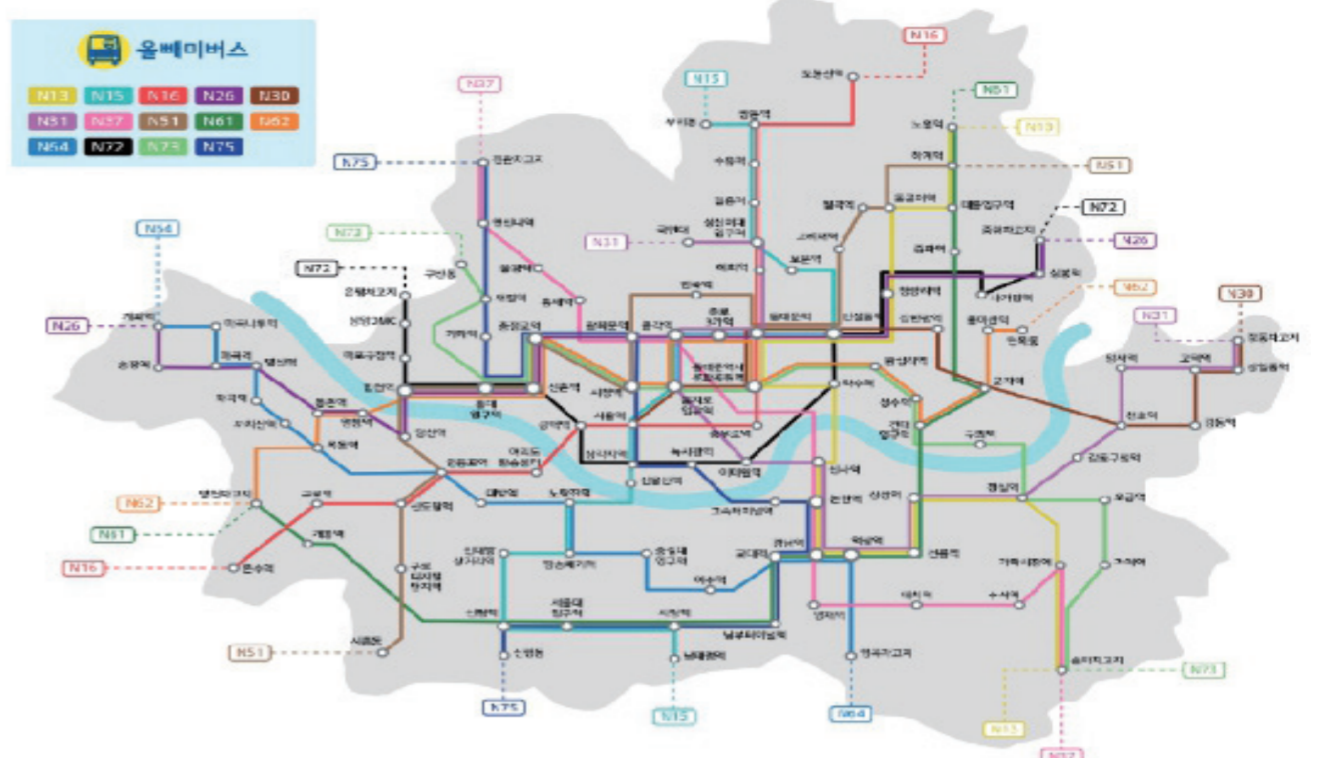
시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

아울러, 지하철 2·3·5호선은 거리응원전이 끝나는 시간부터 익일 3시까지 열차를 특별 운행하여 귀가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광화문역 등 행사장 인근 4개역사에 안전요원을 평시 대비 4배 증원 배치(12명→48명)하고, 인원집중을 막기 위한 동선관리, 지하철 시설물을 점검 등 역사 안전관리도 지속할 계획이다.

금번 거리응원전에서 서울버스 막차연장 운행은 실시하지 않으나, 심야버스 14개 노선이 모두 정상 운행되고, 광화문 등 도심 일대에서 12.3(토) 02~03시에 집중 배차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1차전 당시와 같이 도로가 통제될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통과하는 버스 노선은 인근도로를 통해 우회 운영하며, 차내 및 정류소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사전안내할 예정이다.

거리응원전 당일 광화문 일대에서 공공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반납·대여가 불가하며, 불법 주·정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해 시·자치구가 합동으로 광화문 일



대 주정차 위반차량 집중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므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거나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사전에 운영 앱, 인근 주차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따름이 일시 대역·반납중지 대역소 : 경북구역 4번출구, 종로구청옆, 광

화문역 등 8개소(거치대 123대) 개인형이동장치 반납금지구역 : 광화문광장 구간 반경 700m 이내 그리고 이용시민 편의를 위해 주변 화장실을 개방하고, 행사 전·후 주최측과 서울시, 종로구청에서 환경정비를 실시해 시민들이 쾌적한

분위기에 안전하게 거리응원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붉은악마'에서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응원 진행을 위해 경기시작 전, 하프타임, 경기 종료 후 시민질서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최광수/기자

금천구를 밝히는 빛, 그대는 자원봉사자!

금천구, '2022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개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12월 2일 오후 2시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2022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금천구를 밝히는 빛, 그대는 자원봉사자!'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유성훈 금천구청

장을 비롯해 초청 인사, 자원봉사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힐링 공연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 장구, 색소폰, 립싱크 코미디, 트로트 공연과 초청 가수의 무대가 펼쳐졌다. 또한 서금요법 체험 부스도 함께 운영했다.

2부 기념식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과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표창장을 수여하고, 사회공

헌활동으로 따뜻한 금천구를 만드는 데 동참한 기업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한 해 동안 나눔 정신을 실천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자치행정과(☎02-2627-106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만식/기자

인파 몰리면 CCTV에서 경고 방송 울린다...광진구, CCTV 통합관제센터 응급대응 강화

CCTV 관제 프로그램에 근접, 피플카운팅 기능 추가

광진구가 다중밀집 지역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CTV 관제센터 응급 대응 체계를 강화해 본격 가동한다.

이를 통해 각종 행사와 성탄절, 어린이날 등 인파가 과다하게 몰릴 경우, 광진구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군집' 알림과 '피플카운팅' 기능을 통해 사전에 인구 밀집으로 인한 위험을 즉각 인지하고, 인파가 몰린 지역에는 CCTV 스피커를 통한 경고 방송이 울린다.

"안전사고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다중인파가 몰릴 수 있는 곳에서는 출구를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는 경고 방송을 통해 인파의 분산을 유도하고, 단계별 상황전파 체계를 통해 즉각적인 대응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기존 CCTV 관제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동차 등 객체의 쓰러짐, 배회, 침입 등 사건 발생 CCTV 영상만 선별해 관제 화면에 표시하는 방식이었다.

구에서는 인구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CCTV 프로그램에 지역 내 인구 밀집 지역인 건대 맞의거리, 양포치거리, 능마루 맞의거리, 구의동 미가로를 대상으로



면적 1㎡당 2명 이상 밀집 시 상황을 알려주는 '군집' 기능을 추가했다.

인구 밀집 지역의 특정 공간에 대해 시간대별 유동인구수를 측정할 수 있는 '피플카운팅' 기능도 더해 객관적인 인구 밀집 수를 확인해 인구 밀집 안전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특정일과 특정 지역의 안전사고를 대비해 실시간 집중 관제를 실시한다.

성탄절, 지역축제, 어린이날 등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는 날과 장소에는 해당 CCTV 화면에 대한 전담 관제원을 지정해 집중 모니터링하

고, 재난 대응 단계에 따라 광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아래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해 CCTV 관제센터 근무자가 실시간 집중 관제를 실시함으로써 견고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행정의 최우선 가치"라며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에 가장 훌륭한 대응은 '예방'인 만큼,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예방 체계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서초구, '2022 스마트도시 인증' 현판제막식 가져

서울 서초구는 '2022년 스마트도시 인증' 획득에 따른 현판 제막식을 구청 1층 로비에서 진행했다.

이날 제막식은 지난 9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스마트도시 인증 평가에서 우수 스마트도시로 선정돼 인증서와 동판을 부여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다.

행사는 내빈소개, 경과보고, 인사말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전성수 서초구청장을 비롯해 오세철 구의회의장 등 총 8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 스마트도시 리빙랩 프로젝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내년도 실증사업을 함께 해나갈 3개팀의 주민들도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스마트도시'로서의 출발이라는 의미도 다졌다.

이날 참석한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인증을 받게 된 건 이자리에 계신 주민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서초구가 세계 최고의 스마트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증은 서초구가 구간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위한 체계를 마련했으며, 동네 곳곳에 스마트 기술들을 접목시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

는 '생활 밀착형 스마트 행정'을 추진한 결실이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추진한 공공기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에너지시티 사업'과 각종 재난상황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방범재난 통합관리 체계 구축'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동희/기자

마포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혜택 쏠쏠하네

마포구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 감면해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2012년 3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 차량 소유자이다.

연납 신청은 내년 1월 20일까지 마포구 맑은환경과로 전화 신청하거나 내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택스 또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연납 신청을 하려면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변경이 예정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한다.

납부기한 내 미납할 경우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으나, 연납고지가 취소되고 3월과 9월 연 2회 부과 고지된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률이 3% 미만이다"고 말하며 "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들이 연납 신청으로 작게나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 이용으로 납부자는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구 입장에서 조기 세원 확보와 징수율

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며 "많은 주민께서 연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순/기자



“강원한우⇔농협안심한우” 상생업무협약(MOU) 체결

전국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농가수익증대

강원도는 '22년 12월 2일 춘천철원화천양구축협 대회의실에서 농협경제지주, 강원한우조합공동법인, 강원도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강원한우 유통 확대를 위한 상생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본 협약은 강원한우와 농협안심한우가 연합하여 한우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협약으로 '강원한우 브랜드를 활용한 새로운 수요 창출', '도축·가공·유통 체계 일원화'를 통한 판매 극대화, '강원한우-안심한우 책임 출하제 및 신규사업모형 개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한우”는 생산부터 가공·유통까지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되며, 이를 활용한 대면·비대면 홍보전략 강화로 국내외

판매처 확보 및 해외 투자유치를 점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한우” 브랜드는 2016년 출범 이후 5년 연속 “전국 최고 축산물 브랜드”로 평가받아 대통령상 등을 수상했고, 2022년도에는 국민공감브랜드로 선정되는 등 명실공히 청정 강원축산물의 우수성과 품질을 입증한 강원도 대표 한우브랜드이다.

도 관계자는 “한우 사육마릿수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가격하락이 우려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상생업무협약을 통해 강원한우 농가의 안정적 출하기반 마련으로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화성도시공사, ‘2022년 공정무역 포트나잇(FortNight)’ 행사 개최

화성도시공사는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일주일간 운영했던 ‘공정무역 포트나잇(FortNight)’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는 1997년 영국에서 시작된 공정무역 축제로, 경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정무역 가치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뜻한다.

HU공사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난해 4월 공정무역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2월에 공정무역실천기업 인증을 획득했고 올해로 2회 차 포트나잇을 행사를 개최했다.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는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공정무역 물품 전시하며 공정무역 가치 확산을 위한 활동을 했다. 또한 구내식당에서 공정무역 생산 제품을 후식으로 제공, 종합경기타운 입주 카페에서는 텀블러 지참 시 공정무역으로 생산된 초콜릿을 증정하면서 공정무역의 가치를 홍보했다.

HU공사 김근영 사장은 “이번 행사가 시민들에게 공정무역 제품에 대해 친숙함을 느낄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윤리적인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무역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광주시, IBK기업은행과 ‘동반성장 협력사업’ 연장

광주시는 최근 IBK중소기업은행과 ‘동반성장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연장했다고 2일 밝혔다.

‘동반성장 협력사업’ 광주시와 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지원을 위한 것으로 협약 연장을 체결하고 참여기업모집을 공고했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3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협력 자금을 출연해 출연금의 3배인 총 90억원 규모의 자금으로 올해 11월 말 기준 총 50개 기업에 저금리 융자 혜택을 제공,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다.

시는 기업은행과 올해 연장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은 최대 3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원까지 최장 2년간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

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시중금리에서 1.70%p감면된 금리를 적용받으며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추가로 1.40%p까지 최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시 관내 IBK기업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또는 시청 기업지원과(760-2913), IBK중소기업은행 영업점(경안·곤지암·오포·대전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속 및 원자재값 상승, 고금리 등 대내외적 어려움 경제 여건에서 동반성장 협력사업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강호/기자

경북도, 2022 대구경북 해외마케팅종합대전 개최

- 2일 대구 엑스코서 개최, 코로나19 이후 대구경북 최대 규모
- 중동 등 18개국 31개사 바이어 내한 진행돼

경상북도는 2일 대구 엑스코에서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이상현)와 공동으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인 「2022 대구경북 해외마케팅종합대전」을 개최했다.

이번 해외마케팅종합대전은 법정 기념일인 ‘무역의 날(매년 12월5일)’을 기념해 무역협회가 개최하는 대표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로 2008년 이래 15회 연속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서울-대구경북을 연계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개최된 순수 바이어 초청 내한 행사 중 최대 규모로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유럽/중동/미주/CIS/동남아 등 18개국에서 바이어 31개사가 우리 지역을 찾았으며, 경북에서는 자동차부품, 사물인터넷

(IoT), 화장품, 식품, 생활용품 등 40여개의 산업제 및 소비재 기업들이 참여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를 기반으로 설립돼 ‘중동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전자상거래 기업 누닥컴(Noon.com)은 이번 행사를 위해 최초로 내한해 할랄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기업들과 만남을 주선했다.

인도네시아 최대 자동차그룹 계열인 아스트라(Astra Otoparts), 아랍에미리트에 본사를 두고 중동은 물론 동남아시아까지 판로를 확장하고 있는 루루그룹 리테일(Lulu Group Retail) 등이 우수 산업제와 소비재 발굴을 목적으로 우리 지역을 찾았다.

한편, 수출상담회장 내에 ‘우수 지역상품 진열대’를 설치해 코리아비앤씨(기능성 화장품), 라사(울인원



케어) 등 지역의 K-화장품을 홍보하며, ‘K-식품 시식행사장’도 마련하여 전 세계로 수출되는 식자 대용품(알말이푸드), 건강음료(오가닉위드) 등을 바이어들에게 알렸다.

이달의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세계적 경기침체와 금리상승 등 대외

변수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이 전체적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때일수록 내년 수출 재도약을 위한 씨앗을 파종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연말임에도 대형 수출상담회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김동연, “기업하기 편한 경기도 만들겠다. 경기도 청년에게 기회 많이 만들어 달라”

김동연 지사, 북미·유럽지역 주한상공회의소와 ‘도담소통’ 간담회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북미·유럽지역 주한상공회의소 대표들과 만나 “경기도는 규제 완화와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아주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제 역동성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과 투자하기 좋은 경기도의 이점을 적극 피력했다.

김동연 지사는 2일 도담소에서 북미·유럽지역 주한상공회의소 대표들과 격의 없는 소통과 의견수렴을 위한 소담간담회 ‘도담소통’을 열었다. ‘도담소통’은 민선8기 경기도 지방외교 전략 중 하나로 주한상공회의소와 협력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청년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권오형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회 부회장, 박현남 한독상공회의소 회장,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David-Pierre JALICON) 한불상공회의소 회장, 로버트 랭(Robert Laing)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 이사회 회장,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총장, 오은정(Grace Oh) 주한스웨덴상공회의소 회장, 프란체스코 푸시(Francesco Fussi) 주한이탈리아상공회의소 회장, 헤이키 란타(Heikki Ranta) 주한핀란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빠져있고, 내년에도 더 큰 어려움이 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서 투자를 비롯한 경제의 역동성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렇지만 경기도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 가운데 미래성장산업국 신설을 언급하며 “미래 먹거리라 할 수 있는 산업들을 개별과로 만들어서 원스톱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6개 과로 구성돼 있는데 4개 과는 반도체산업과 바이오산업과 AI빅데이터산업과 첨단모빌리티과이며 나머지 2개 과는 규제개혁하는 과와 창업·창직을 도와주는 과”라며 “규제 완화와 혁신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서 기업들이 경기도에서 아주 편하게 또 시장원리에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경기도에 훌륭한 청년들 많이 있으니까 경기도 청년들을 위해서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경기도에 있는 아주대 총장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라며 “경기도는 인구, 경제 규모 산업체 등 대한민국의 모 든 것을 갖고 있는 작은 대한민국이고 숫자로 표현하기 힘든 모든 산업과 혁신의 허브”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참석자들에게 앞으로 정례적인 만남을 제안했으며, 참석자들도 경기도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화답했다.

권오형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회 부회장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 지회 웰컴과 같은 반도체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경기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오피스도 있다”며 “경기도가 국내 반도체 기업과 미국 입장에서 경기도와 협력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경기도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현남 한독상공회의소 회장은 “1981년에 수립된 한독상공회의소는 한국기업과 독일 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양국의 경제 규모는 코로나,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 다양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오랜 시간 동안 한국과 독일 양국의 경제적 유대가 얼마나 견고하게 성장했는지 보여준다. 특히 2023년은 한·독 수교 140주년을 맞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David-Pierre JALICON) 한불상공회의소 회장은 “프랑스 기업들이 경기도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더 많은 협력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외투 기업들이 인제 찾기를 어려워 하고 있고 경기도는 청년인구가 많으니까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주에 프랑스 잠재 투자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기도를 설

명하는 기회가 있는데 경기도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총장은 “디지털경제 그리고 지속가능성 관련해서 경기도와도 앞으로 협력하고 싶다. 제안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프란체스코 푸시(Francesco Fussi) 주한이탈리아상공회의소 회장은 “청년 창업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고 양국 간 청년 일자리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만들었다”며 “한국이 기술 선도국가로 알려질 기회가 앞으로 더 있을 것 같고 앞으로 교류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헤이키 란타(Heikki Ranta) 주한핀란드상공회의소 회장은 “핀란드 기업들이 미래성장 관련된 연구 개발(R&D)을 많이 하고 있어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경기도는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 같은 도담소통을 정례화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아시아 지역 상공회의소와도 만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는 투자환경조성 토론회, 글로벌 이슈 공유, 교류 및 투자분야 협력, 지역사회 기여, 경기도문화유산투어 등을 함께 진행하며 양 지역 경제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혜영/기자

충청남도, 에너지산업 국산화 기술 확보 ‘박차’

‘충남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사업’ 1단계 종료...2단계 추진

충남도는 충남 과학기술진흥원을 중심으로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행한 ‘충남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의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1단계 사업은 에너지산업 분야 국산화 기술 확보 및 지식재산권 창출을 통한 미래시장 선도 역량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추진했으며, 태양광·이차전지·수전해 등 총 3개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했다.

태양광 분야 과제를 수행한 솔라플렉스는 △태양광 각도에 따른 발전 효율 변화 감소 △1.31GW/년에서 1.68GW/년으로 발전량 증가 △설치 방식 단순화, 경량화를 통한 지붕 설치 편의성 향상, 내구성 향상 등의 기술적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과제로 솔라플렉스는 국내 특허 1건을 출원했으며, 경제적 성과로는 2025년까지 매출 104억 원 규모를 예상하고 있다.

이차전지 분야 과제를 연구한 엔비리서치는 △순도 99.95% 이상의 고순도 리튬금속 정제기술 개발 △합금 조성 편차 1wt% 이내의 고균일 조성 합금 제조기술 확보 △폭 100mm 이상의 광폭, 두께 50μm급의 초박판 리튬금속 호일 제조기술 확보 △질화알루미늄(AIN) 및 리튬불화화합물을 이용한 리튬 메탈 안정화 기술 확보 △리튬금속이차전지 제조 및 평가 기술 확보 등의 기술적 성과를 이뤘고 국내 특허 1건을 출원했다.

경제적 성과로는 2025년까지 매출 100억 원 규모를 기대하고 있다. 수전해 분야 과제를 맡은 오버플

러스파워는 기술적 성과로 △스택 설계를 위한 스택 사양에 따른 스택 시스템 디자인 △유동 및 구조 해석 기반 핵심 부품 설계 기술 △스택 제작을 위한 서플라이 체인 및 시스템 통합 기술 △스택 성능 평가 장비 및 시스템 통합 방법을 확보했고 △스택 사양에 따른 평가 장비 보조기(BOP, Balance of Plant), 온도·압력 제어 및 계측시스템 설계 기술도 개발했다.

이 과제로 오버플러스파워는 국내 특허 4건을 출원했고 2025년까지 매출 17억 원 규모의 경제적 성과를 전망했다.

현재 1단계 사업에 이어 올해 6월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차전지 2개와 에너지 효율 향상 1개 등 총 3개 과제를 2024년 12월까지 연구한다.



도 관계자는 “1단계 사업의 성과는 에너지산업 시장을 중장기적으로 선도할 기반이자 매출·수출·고용 창출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이끄는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며 “2단계 사업 지원으로 에너지 전환, 친환경 제품 관련 소재·부품을 개발해 충남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기고

「조겨울을 맞은 아름다운 울진 예찬」

- 푸른 동해를 황홀하게 물들이는 붉은대게

- 붉은대게 명산지 후포항에서 조겨울 여행 즐기기

황금빛 물결에 오색찬란한 빛이 산천을 물들이며 화려했던 시간이 지나고, 제법 차가워진 바람에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는 12월이다. 조금은 쓸쓸함이 느껴지는 이맘때, 생기 넘치는 여행이 필요 하다면 울진으로 오라고 권하고 싶다. 왜냐하면, 알만한 사람은 다 아시겠지만, 울진 명물, 붉은대게의 계절이 이곳 울진 후포항에서 그 막을 열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조겨울 울진 예찬」을 이곳 후포항에서 하나하나 펼쳐봤다.

▲붉은대게, 푸른 동해를 황홀하게 물들이다.

때 이른 추위가 찾아온 어느날 아침, 후포항에서 비릿한 바다내음과 함께 큰 배 가득 붉은 대게를 싣고 들어오는 어선을 만났다. 흔히 '홍게'라 부르는 붉은 대게는 말 그대로 몸 전체가 붉은색을 띠고, 수심 1,000m~2,500m에 서식하는 어종으로 갈슘, 미네랄, 키토산, 아연 등 많은 영양소가 들어 있으며,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잡을 수 있지만, 성어기는 가을빛이 절정에 달하는 11월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겨울철 대게'를 일미로 꼽지만, 제철 붉은대게는 대게 못지않게 귀한 별미이다. 또, 대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오랫동안 즐길 수 있다는 것도 큰 매력이다. 하나, 대중적인 가격에 비해 붉은대게를 잡는 일은 먼바다까지 나가야 한다. 한 번 작업시는 길게는 8일까지 머물러야 할 정도로 여간 수고스러운 게 아니다. 게다가, 요즘 평균 어획량은 예전의 5~60% 수준인 2~3천마리 선으로 어민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는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어민들은 늘 감사한 마음으로 바다가 내어주는 만큼만 거둬 오는 덕에 지금까지 붉은대게의 명성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항구에 도착한 붉은대게는 어선에서 1차로 선별을 거친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 노련한 선원들이 빠르게 크기별, 상태별로 골라 상자에 분류하는데, 와르르 쏟아지는 붉은대게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한 마리 한 마리에 동해의 힘찬 기운이 그대로 스며들어 있어, 이곳 울진 이 붉은대게의 명산지라는 것을 실감케 해준다.

▲붉은대게 경매도 꼭 한 번쯤은 볼만하다.

요즘 후포항 붉은대게 경매는 평일 기준 하루 약 세 차례로, 생생한 현장을 볼 수 있다. 빠르게 옮겨진 붉은대게들은 손이 재빠른 아낙들의 해 경매장 바닥에 펼쳐진다. 크기별로 구분해 세워두는데, 상자에서 꺼내 펼치고 경매 후 다시 상자에 담는 과정이 순식간에 진행되는 탓에, 처음 보는 이들은 그저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다.

중매인들과 경매사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한바탕 벌어지고 나면 비로소 경매가 끝이 난다.

이 모든 것이 신선한 붉은대게를 보다 좋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과정이다. 필자는 입찰이 끝나 수초 차에 실리는 붉은대게를 보면서 잠시 저 붉은 대게가 오늘

어떤 미식가들의 입을 즐겁게 할지 나름 상상해 본다.

▲붉은 대게의 맛있는 변신!

후포항 한쪽에는 어시장 난전이 펼쳐져 있다. 다양한 제



철 수산물, 건어물과 함께 붉은대게를 쌓아놓고 파는 상인들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발품을 팔면 당일 경매에서 제외된 물량과 같이 일부 품목들은 일반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이 붉은대게는 산지에서 바로 맛을 봐야 제맛! 그렇기에 맛을 보고 싶다면 뛰니뛰니해도 식당들이 늘어선 후포항 횡집 거리를 추천드린다. 어딜 가든 찜부터 볶음밥, 탕, 라면 등 붉은대게를 한 상 가득 제대로 즐길 수 있다.

특히, 거리를 걷다 보면 붉은대게를 찌는 과정에서 내뿜는 증기가 확 퍼지는데, 그야말로 '붉은대게 증기 샤워'를 하고 나면 그 향기에 취해 어느 식당이든 들어가서 앉고 싶은 버릴 수가 없을 것이다.

특유의 진한 향미와 짭조름한 맛을 자랑하는 제철 붉은대게는 일품 대게에 뒤지지 않는다는 게 현지 사람들의 공통된 얘기이지만, 세월이 따라 변하는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주민들의 새로운 시도도 주목할 만하다.

먼저, 후포 토박이라는 한 주인장이 야심차게 내놓은 붉은대게찜이 있다. 최근 유행하는 미국식 봉지해물찜을 연상케 하는 이 메뉴는 붉은대게에 홍합, 새우, 가리비, 소시지 등을 푸짐하게 넣어 양념을 가미한 요리다. 트렌드에 민감한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음식으로, 눈으로 한 번, 맛으로 한 번 즐길 수 있다. 누구보다 붉은대게를 사랑한다는 주인장은 붉은대게에 평생을 바친 아버지의 대를 이어 울진 붉은대게의 명성을 잇고자 다양한 가공제품과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옛날 지역 사람들이 많이 먹었던 음식이 재탄생된 경우도 있다. 바로 다릿살을 말린 '해각포'다. 조선 중기 허균이 전국 식품과 명산지에 대해 쓴 '도문대작'에도 등장할 만큼 역사가 깊은 음식이라 할 수 있는

데, 저장성을 높여 오래 먹기 위한 지혜가 발휘된 셈이다.

이처럼, 손이 많이 가고 가정에서 조금씩 만들어 먹던 음식이었기에 쉽게 맛볼 수 없었던 '해각포'를 최근 울진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만드는 곳이 생겼다. 향토음식에 지역 사람들의 손맛을 더해 만드는데, 어르신들에게 그 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젊은이들은 맥주 안주 등 새로운 간식으로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전통적인 특산물이라도 늘 같은 방식이 아닌, 변하는 시대와 소비자에 맞게 연구하고 알리려는 노력이 특산물과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에 필자는 붉은대게에 진심인 후포 사람들의 도전이 끊임없이 이어져 또 다른 별미가 탄생되길 기대해 본다.

▲붉은대게 전시관과 울진 남부해변 드라이브!

붉은대게를 맛으로 즐긴후, 울진대게홍보전시관까지 둘러보는 것을 추천한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무료 관람의 장점과 더불어 방문 후기는 꾸준히 좋은 편이다. 특히 아이

가 있는 가족 단위를 끌어들인다면 더욱더 가볼 만한 곳이다. 전시관은 대게와 붉은대게, 너도대게 등 다양한 '게' 종류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시청각 전시가 주를 이루고 있어, 울진대게에 대해 한층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소소한 체험도 즐길 수 있으니 꼭 한 번 둘러보자.

또 하나, 이곳 울진에 오신다면, 반드시 후포항 북쪽에서 시작되는 울진 남부 해안도로 코스를 꼭 한번 둘러보라고 추천드리고 싶다.

보통 우리네 사람들은 편리한 네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설정하고 찾아가는 여행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번엔 길이 이어진 대로 몸을 맡기고 따라가 보는 것도 해볼직 할만하다. 후포6리부터 평해읍 거길리, 직산리까지 이어지는 도로는 한적한 어촌마을의 풍경을 잘 보여준다.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를 즐길 수 있다. 특히나 중간 중간 해안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데크도 있어 잠시 머물다 가기도 좋다.

그러다 우연히 만나는 평해읍 거길리의 황금대게공원은 더욱 반갑다. 이 마을의 지형도가 '게' 알처럼 생겨서 거길리가 되었다는 마을의 역사와 더불어 대대로 대게잡이가 성행했던 '대게원조마을'이다. 공원의 조형물을 보며 잠시 그때를 상상해 봐도 좋다.

붉은 단풍이 모두 지고 가을빛이 바래졌다고 슬퍼할 필요 없다.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울진이 있고, 후포항에 펼쳐지는 어선들에서 쏟아져 내리는 2~3000마리의 붉은 대게의 아름다운 향연이 펼쳐지기에.....

이처럼 아름다운 울진 후포항의 붉은 대게의 아름다운 선율에 여러분들의 따스한 손으로 붉은대게를 맡겼으면 해주시길 주문드려 보며, 「조겨울을 맞은 울진의 아름다운 울진 예찬」해 본다.

울진군청/두근미

칼럼

복합 경제위기 속 꺼져가는 수출 동력, 산업 전반 리셋 화급

전 세계가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수출 엔진이 빠르게 꺼져가고 있다. 지난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19억1,000만 달러로 1년 전 603억3,000만 달러와 비교해 14.0%나 줄었다. 수출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주요국 통화 긴축 등 글로벌 경기둔화,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팬데믹이 본격화된 이후 2년 반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동차, 이차전지, 석유제품 등의 수출은 증가세를 계속 이어갔다.

특히, 자동차는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했다.

반면 한국경제의 주춧돌인 반도체 수출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84억5,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9.8%나 감소했다. 서버 수요 둔화, D램-낸드플래시 가격 하락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메모리반도체 수출이 크게 줄었다. D램 고점가는 올해 초 3.41달러에서 10~11월 2.21달러까지 떨어지 상태다.

반면에 지난 11월 수입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3대 에너지원인 원유·가스·석탄의 수입액이 전년 동월 122억1,000만 달러와 비교해 27.1%인 33억 달러나 증가한 155억1,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년 전보다 2.7%나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무역수지는 70억1,000만 달러(약 9조 1,000억 원) 적자로 지난달인 10월의 67억 달러보다 적자 폭이 더 커졌다. 이 영향으로 무역수지는 8개월 연속 적자에 빠져 1995년 1월~1997년 5월 연속 적자 이후 25년여 만에 처음이다.

믿었던 수출마저 두 달 연속 감소해 올해 누적 무역적자는 425억6,100만 달러에 달해 무역수지 통계를 낸 1956년 이래 최대치를 경신하며 연간 적자는 50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수출 동력이 꺼지면서 4분기 경제 성장 가능성마저 위

려된다. 문제는 내년 이후에도 수출이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대로 가면 수출은 내년에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 보인다.

지난 11월 1일 한국무역협회(KITA)는 '올해 수출입 평가 및 내년 전망'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진과 통화 긴축으로 무역 환경이 더 어두워질 것"이라며 내년 수출은 주요국의 경기 부진으로 4% 감소한 6,624억 달러, 수입은 국내 경기둔화와 유가 하락으로 8% 줄어든 6,76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내년 무역수지가 138억 달러 적자일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경기 부진이 내년 1분기에 본격화해 2024년 2분기(4~6월)까지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가 둔화하고 침체한 와중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면 복합 경제위기의 수렁에서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반에 대한 리셋(Reset)을 통해 활로를 개척해야만 한다. 구조적 무역적자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첩경은 기술 초격차 확보와 인재 육성으로 첨단 신산업 육성을 통해 한국 기업과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신냉전, 블록화, 경제안보 및 기술 안보가 국가안보와 동일시되는 '지경학적(Geo-economics)' 시대에 맞도록 노동-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산업구조도 리셋(Reset)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에서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는 동시에 원전, 방산, 건설 인프라,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 드론 등 신산업을 수출 첨병으로 육성해야만 한다.

특히, 미국이 대(對)중국 압박을 지속하며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디커플링(Decoupling | 탈동조화)'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수출 시장의 다변화는 무엇보다 화급하다.

최대 시장인 대(對)중국 수출이 여섯 달 연속 감소세다. 지난달 중국 수출액은 113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5.5%나 감소했다. 중국에 이어 수출액 2위인 아세안도 90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

박근중 작가·칼럼니스트(현,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 소방준감, 서울소방제1방면지휘본부장, 종로송파관악성북소방서장)

비 13.9% 감소했다. 거대 시장의 부진이 한국 수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등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유럽과 미래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중동 등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주요 시장별 맞춤형 수출전략 추진을 강화해야 한다.

아세안·미국·중국 3대 주력 시장에 대해서는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국가별 맞춤형 수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동·중남미·유럽연합(EU) 3대 전략시장은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등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 현지 진출 지원 및 수출 확대 촉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무역적자의 가장 큰 근원(根因)은 에너지 수입액 급증이다. 수입액 증가는 어쩔 수 없더라도 기업과 전 국민이 모두가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산업을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과감히 전환해야만 한다.

수출은 기업이 한다면 수출의 수장은 정부는 기업의 발목을 채워져 있는 모래주머니부터 제거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일관된 의지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노동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만 한다.

한편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건 글로벌 경쟁이 한창이지만, 막상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칩스법(반도체 특별법)」 논의는 지난 8월 발의 이후 4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주요 경쟁국이 반도체 기술 패권을 쥐고자 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등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사실상 허송세월하고만 있는 셈이다.

반도체 산업은 속도가 곧 생명인 '속도전'의 전형이다. 「K칩스법(반도체 특별법)」 통과가 마냥 늦어진다면 위기에 빠진 「K반도체」를 구할 '골든 타임'마저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조속한 통과와 법안 세 인하 등을 통해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마음껏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은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Advertisement for '일상 속 작은 기부 습관' (Small Giving Habits in Daily Life) featuring illustrations of people donating and logos for Korea Press Foundation and 사랑의열매 (Love's Warmth).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도의원, '2022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 수상

호남지역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의회활성화공로대상영예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완도2·농수산위원장)은 12월 2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2022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 의회 활성화 부문의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은 광주·전남의 23개 시·군지회 350여 명의 기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대한기자협회광주·전남협회'에서 주최하며,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협회에서는 매년 호남 발전에 공헌한 인물을 선정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협회 기자단과 각 분야 교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엄격한 평가를 거쳐 수상 인물을 뽑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제4회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 선정위원회가 총 12개 분야에 32명을 최종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의회 활성화 공로부문 대상을 받은 신의준 의원은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으로서 그간 농어업인을 대변한 적극적인 행보로 위원회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점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쌀값 회복 성명발표 ▲고품질 쌀 관련 조례 제정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 ▲섬 주민 택배비 경감 촉구 ▲수산물 가격안정 조례 발의 ▲민간주도형 해양쓰레기 수거 정책 제안 등 현안에 대한 시의적절한 조치와 관련분야 입법 활동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에 노력한 점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대상을 수상한 신 의원은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엄중

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전남도민과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해 달라는 뜻으로 알고,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한편 신의준 위원장은 지난 11대 이어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입성하여 전반기 농수산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병수/기자

완주군, 보건복지부 보육정책 평가에서 전북 유일 '우수상' 쾌거

전국 230개 기초단체 경합, 호남서는 완주와 광주 2곳만 수상의 영광

완주군의 보육정책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의 평가 결과 전북에서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2일 완주군에 따르면 전국 230개 시군구 기초단체가 경합한 보건복지부의 '2022년 지자체 보육정책 평가'에서 각 항목별로 높은 점수를 받아 전북 유일의 '우수상'을 수상, 포상금 300만 원을 받게 됐다.

광역단체에서 1차 평가 후 보건복지부에서 최종평가를 하는 엄격한 평가에서 완주군은 미래행복 보육정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고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코로나 대응과 공보육 확충, 어린이집 질 관리 추진, 보육교사 처우개선 기여도,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적정관리 노력 등 8개 항목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했다.

그 결과 어린이 안전공제보험 단체 가입과 공보육 기반조성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국내 첫 아동용부즈퍼사무소 개소,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재료 제공, 전국 두 번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등 행복한 보육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온 완주군의 노력이 후한 점수를 얻었다는 전언이다.

전국 23개 기초단체가 수상한 이번 평가에서 호남 3개 광역단체 중에서는 광주 광산구와 북구, 전북 완주군 등 3곳의 기초단체만 수상의 주인공으로 떠올랐으며, 전북과 전남 등 광역 도(道) 단위 기초단체 중에서는 완



주군이 유일했다.

앞서 완주군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 시 심사위원을 비공개로 선정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주력해 주변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완주군은 이 과정에서 해당부서와 군의회 의원들 간 의견 조율을 거쳐 비공개 선정으로 전환하는 등 의회와의 협치를 견인하고 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 실현을 위해서는 보육정책부터 경쟁력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보고 노력한 것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져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욱 안전하고 따뜻한 보육정책, 공정하고 투명한 보육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김천 2022 사명대사공원 한복사진 공모전 수상작 시상

디지털카메라 부문, 스마트폰 부문 총 32점 선정

김천시는 지난 1일, 2022 김천 사명대사공원 한복사진 공모전 입상작에 대해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공모전은 김천의 관광지, 자연 경관을 배경과 어우러지는 한복사진을 공모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두 달 간 총 360점의 우수한 작품들이 출품됐다.

심사는 외부 전문 심사위원의 1,2차에 걸친 공정한 심사를 통해 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 각 부문별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3점, 입선 10점 총 32점 작품을 선정하여 총 1,04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졌다.

디지털카메라 부문 금상에는 김천 사명대사공원 평화의 탑을 배경으로 담은 '연인' 정청자(경북 상주시)씨의 작품이 선정됐으며, 스마트폰 부문 금상에는 '웃놀이' 김원순(경북 김천

시)씨의 작품이 선정됐다. 공모전 수상작은 김천시의 관광홍보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여 시의 관광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에 쓰일 예정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김천의 아름다운 관광지와 어우러지는 한복사진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많은 분들에게 우리 김천이 사진찍기 좋은 명소로 주목받을 수 있는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 사명대사공원 한복사진 공모전 수상작은 김천시청 1층 로비(12월 2일 ~ 9일)와 KTX김천구미역(12월 9일 ~ 16일)에 전시될 계획이다.

이봉원/기자



경상남도의회 전기풍 도의원, 2022 매니페스토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4번째 수상

전기풍 경남도의원(거제2, 국민의힘)이 지방의원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약속대상(지방선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남의 지방의원 중에는 유일한 수상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수상자를 지난 12월 1일 발표했다.

매니페스토약속대상은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매년 전국 지방의원들의 공약 이행과 주민소통 노력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선거공보를 전수 조사해 지방의원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평가했다. 창의성·적실성·구체성, 공약 작성과정의 민주적 절차 이행 등이 주요 평가지표다.

전기풍 의원은 제6~8대 거제의원을 지내며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3차례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이 4번째 수상이다.

이번 수상으로 기초의원인 광역의원인 자리를 가리지 않고 지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지방의원이라는 점을 공히 확인받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

전기풍 의원은 "지역민을 대표하



는 의원으로서 유권자와의 약속을 금과옥조로 여기고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며 "수상에 연연하지 않고 그동안 해온대로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제12대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의원연구단체 '경남거버넌스포럼 의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자치분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재현/기자

완도군 의회 허궁희, 조인호 의원 의정대상 수상

지방자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기여한 공로 인정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과 조인호 의원이 한국유권자총연맹이 주관하는 2022년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부문에 최고 영예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의회 의정대상'은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정책 입안, 주민복지 증대,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시책 장려 등 지방자치 발전과 향상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한국유권자총연맹에서 실시해온 의정평가 시스템이다.

허궁희 의장과 조인호 의원은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의 임무에 충실함은 물론 지역발전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민원해결에 공로를 인정받는 등 현장 중심의 생산적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서 두각을 보였다. 그동안 입법활동을 통하여 "여객선 야간운행 지원 조례",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군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며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앞장섰다.

이와 같은 활동 때문에 두 의원은



군민과 소통하는 의정상을 구현하고 성공적인 지방자치 운영을 위한 자치분권 실현에 지방의원으로서 역량과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허궁희 의장은 "영예로운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기쁘다. 정치를 시작하며 새긴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했고, 조인호 의원은 "지방의원으로서 책임감이 막중한 가운데 이런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리며, 남은 임기 동안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꼼꼼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재원/기자

안성시, 2022년 영농폐기물 수거실적 달성 우수지자체 선정

폐비닐 1,211톤, 농약용기 19톤 수거 등 영농폐기물 재활용 앞장



안성시가 지난 11월 24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2022년도 영농폐기물 수거실적 달성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농업 활동 후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농촌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영농 폐자원을 재활용하고자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농업 활동 후 발생하는 영농 폐기물에 대해 SNS 및 전광판, 이장회의를 통해 홍보하는 것은 물론 상·하반기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기간(농번기 전후)을 운영했으며 관련 단체 및 유관 기관과 협조해 지역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한 결과 올 한해 영농폐기물 총

1,230톤(폐비닐 1,211톤, 폐농약용기 19톤)을 수거·처리했다.

또한 안성시에서는 유독성이 강한 폐농약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집중 수거 기간을 정해 읍·면·동에 비치된 폐농약 수거함에 모아 적정 처리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미래가 있는 농촌을 위해서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재활용)는 우리 모두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습관”이라며, “앞으로도 깨끗한 안성을 만들기 위해 농업인 여러분들과 유관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온라인 취업박람회” 구직 문의 몰려

고양특례시와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진행한 온라인 취업박람회에 채용 문의가 이어졌다. 센터는 11월 한달간 진행한 ‘호호여성취업캠프’에 130개 기업이 참여하고 700여명의 여성 구직자가 참가했다고 전했다.

호호여성취업캠프는 11월 11일 대규모 현장 박람회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이태원 참사 이후 온라인 행사로 변경됐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호호여성취업캠프는 구인난을 겪는 기업들과 구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풍성한 성과를 냈다. 12월 1일 기준 150여 명이 채용되거나 채용될 예정이다. 현재 515명이 면접대기와 채용대기 대상자로 집계되어 채용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

업을 돕려하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특전사 출신 유튜브 은하캠핑 운영자 박은하를 초청해 토크쇼와 이벤트를 진행했다. 많은 여성 구직자에게 영감을 준 영상은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유혜림 관장은 “오프라인 행사가 취소되어 아쉽지만 기업과 여성 구직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좋은 성과를 낳았다.

오프라인 취업박람회 참여를 바라는 기업과 여성구직자를 위해 12월 8일 ‘호호여성 직종특화 취업 박람회’를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참여를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 내 일자리 매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호호여성취업박람회 성공적 마무리...130개 기업 참가



경기도, 경기관광공사경기교통공사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신임기관장 임명

- 김동연 지사, 2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신임 대표 4명에 임명장 수여
-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조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집무실에서 공공기관 신임 기관장 4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조원용 전 효성그룹 전무, 경기교통공사 사장에 민경선 전 도의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에 채이배 전 국회의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에 조신 전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을 임명했다.

조원용 신임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아시아나항공 홍보실장(상무), STX 그룹 경영본부장(전무), 효성그룹 홍보실장(전무)을 역임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항공사 근무경력과 관광 분야를 연계한 경영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경선 신임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8·9·10대 3선 도의원 출신으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활동을 통해 해당 분야에 능통하고 도정 전반에



대해 충분한 이해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됐다.

채이배 신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제20대 국회의원 겸 공정정책전략연구소 수석자문위원을 지냈으며 신뢰성과 전문성, 창의성 등에서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

하다고 판단됐다.

조신 신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기획단장)을 역임했으며 역시 시장상권진흥원 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경기관광공사와 경기교통공사 사장 임기는 2022년 12월 2일부터 2025년 12월 1일까지 3년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임기는 2022년 12월 2일부터 2024년 12월 1일까지 2년이다.

조혜영/기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2022 G-Housing 리모델링’ 73가구 성황리 종료

주거 취약계층 73가구에 집수리 진행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올 5월부터 10월까지 주거 개선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에게 집수리 활동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G-Housing 리모델링 사업’은 2020년부터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협약해 경기도 전역의 주거 개선이 필요한 소외계층 대상자 주거 환경 개선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특히 복지 사각지대 대상을 확대해 다양한 수혜자를 발굴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올 4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3억6000만원을 지원받아 2022년 한 해 동안 21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G-Housing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했으며, 총 73가구에 집수리 활동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전국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경기도 지역에도 극심한 피해를 본 대상자에게 긴급 지원이 이뤄졌으

며 침수뿐만 아니라 전기 공사 및 지붕 등 다양한 집수리 활동이 진행됐다.

이번 G-Housing 리모델링 사업 수혜자인 신대순 씨는 “갑작스러운 수해로 너무 막막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을 줘서 너무 힘이 돼서 감사하다. 기회가 되면 받은 만큼 베풀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감사를 전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권석필 센터장은 “수해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담당자들 노력으로 경기도 전역 가구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더 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도와 함께 다양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중증 장애인 주택 개보수와 햇살 하우스, G-Housing 리모델링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G-Housing 리모델링 사업 외에도 ‘경기사랑애집 고치기’ 사업을 전문 재능 자원봉사를 통해 집 고치기 활동 및 대상자 사후 관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지

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소외계층 집수리 활동 및 전문 자원봉사단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조혜영/기자

경기도,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우수보육 프로그램 시상

2일 '22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공모전 시상식 개최

경기도는 2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보육프로그램 및 인성교육을 우수하게 운영한 도내 어린이집 등을 격려하는 ‘2022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분야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경기도 내 우수보육 프로그램 및 인성교육 사업 참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보급하면서 보육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상식은 ▲우수보육프로그램(북부내 어린이집) 경기도청북부청사어린이집 등 경기도지사상 10개소 및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상 10개소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인성교육 시범어린이집) 시립센터얼자이2단지어린이집 등 경기도지사상 20개소 및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상 20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성교육 우수운영사례(도내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경기도지사상 5개소로 나눠 진행됐다.

우수보육프로그램 사업은 경기북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진행하기 위함이며 ▲우수보육프로그램의 발굴 및 보급을 통해 영유아대상 프로그램 질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경기북부 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52개



사례가 접수돼 주제 적합성, 프로그램의 보편성 및 연계성, 창의성, 지역의 특수성, 놀이학습공동체 사업 참여도를 기준으로 20개 사례를 선정했다.

인성교육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어린이집 및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분야별(영유아대상/보육교직원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하고 보급함으로써 도내 인성친화적 보육환경을 조성·확산하는 내용이다. 인성교육 시범어린

이집으로 선정된 100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사례가 83개 접수돼 주제 적합성, 프로그램의 구체성 및 현장 적용 적절성, 창의성, 영유아 발달의 적합성,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 및 시범어린이집 사업 참여도를 기준으로 40개 사례를 선정했다.

또한 경기도 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인성교육 운영사례가 6개 접수되고 주제 적합성, 프로그램의 구체성 및 형식적 완성도, 창의성, 지역의 특수성, 프로그램의 일반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5개 사례가 선정됐다.

수상기관의 우수프로그램은 사례집으로 발간 예정이며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받아볼 수 있으며 모바일 등으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홍성호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경기도 내 우수한 사례 발굴·보급을 위해 다양한 공모전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수원시, '2022년도 주민자치 활동 평가'에서 울천동 최우수상 선정

우수상 서둔동·매탄4동·송죽동, 장려상 행궁동·광교1동·인계동·금곡동

수원시가 44개 동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2년도 주민자치 활동 평가'에서 울천동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수원시가 2일 시청 대강당에서 연 '2022년 주민자치 활동 평가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세상을 바꾸는 동네자치'를 발표한 울천동 주민자치회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서둔동·매탄4동·송죽동이 우수상, 행궁동·광교1동·인계동·금곡동은 장려상을 받았다.

울천동은 투쟁 페트병 수거함 제작·설치, 찾아가는 '쓰레기 분리배출교실' 등 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전개했다. 또 멸종 위기 우려종 꼬리명주나비 생태정원 조성 ▲빛물저금통 설치 ▲사랑의 텃밭(공유농장) 조성 ▲교육취약 청소년을 위한 '성균관대학생 멘토링' 등 사업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둔동은 '사람과 역사와 자연이 함께 웃는 초록서든', 매탄4동은 '소곤 소곤 행복마을 이야기', 송죽동은 '지역공동체 기반의 정감이 넘치는 송죽동'을 발표해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지난 11월 1~16일 구별로 진행된 1차 평가를 거쳐 올라온 8개 동(구별 2개동)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현장평가 항목은 ▲지역공동체 형성 ▲독창성·창의성 ▲지속성 ▲성과도 등이다.

현장심사 점수(50%)와 지난 11월 21~30일 수원시가 시행한 정량 평가(50%)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결정했다. 시상금은 최우수상 200만 원, 우수상 100만 원, 장려상 50만 원이다.

시상을 한 이재준 특별시장은 "우수사례를 발표해주신 8개동에 감사드립니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동이 우수사례 발표회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이민근 안산시장, 단원구 와동 주택가 화재 현장 긴급 점검...사고 수습·피해자 지원에 최선



이민근 안산시장은 2일 단원구 와동 주택가 화재현장을 찾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이재민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화재는 2일 오전 11시 13분경 단원구 와동의 다세대주택 내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가스 폭발 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사고원인은 조사 중이다.

신고를 받은 안산소방서는 대응 1 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여 오전 11시 56분경 진화를 완료했으며 경상 7명(연기흡입) 중 3명이 병원으

로 이송됐다.

안산시는 사고 즉시 직원을 현장에 급파하고 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 피해자 확인 및 이재민에 대한 임시거주 시설 마련, 취사도구 및 구호물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민근 시장은 이재민과 주민들을 위로하고 "이재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면밀히 지원하고 앞으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전 점검 및 겨울철 화재 예방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정부기자

임병택 시장, "시흥이 시민의 자부심되는 K-시흥시 완성" 2023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

임병택 시흥시장이 2일 제30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민선8기 시흥시는 함께의 저력, 무한한 가능성을 원동력 삼아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나아가고자 한다"라고 밝히며 "K-골든코스트를 기반으로 시흥이 곧 시민의 자부심이 되는 K-시흥시를 완성하겠다"라고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임 시장은 복합적 경제위기, 10·29 이태원 참사 등 나라 안팎의 어려움으로 가장 보통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고 운을 댄 후 "우리에게는 언제나 시흥시답게, 시흥시민답게 어려움을 이겨내 온 시흥만의 저력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산업단지과 갯골, 호조벌, 첨단자족도시, 마을공동체 등 시흥시가 지닌 무한한 잠재력을 언급하며 "역사와 미래,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가 바로 시흥시"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민선8기에 집중할 5대 시정 방향으로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배움으로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교육도시 조성 △상생의 균형발전으로 57만 대도시 위상 제고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강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 환경 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먼저 민생 회복을 목표로 서울대,



서울대병원과 연계한 첨단산업 성장기반을 만들고, 거북섬 시화호를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제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활력을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교육도시를 마을 교육 자원 확대와 시흥교육캠퍼스 구축, 서울대 교육협력을 비롯한 지역 대학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더 견고히 한다.

특히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과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급 확대, 특수학교 설립 등 평등한 교육사다리 실현에 주력하며 교육도시 시흥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상생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광명시흥 신도시의 명품자족 신도시 조성, 시청 앞 행정타운 구축, 월곡지구

역세권·국가어항 개발, 시화MTV 첨단산업단지 조성, 시흥형 버스준공영제 완성 등의 비전을 강조했다. 대야·신천 도시재생뉴딜사업, 정왕동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등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연계·장원 공공주택지구, 하중·거모 공공주택지구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은 더 두텁고 촘촘하게 만든다. 돌봄이 필요한 모두에게 돌봄SOS센터를 통한 원스톱 통합 돌봄을 제공하고, 아동주거복지 지원, 집수리 지원 등 시흥형 주거복지는 생활권별 맞춤형 서비스로 확대한다. 어르신, 장애인 등 복지 취약계층에는 공공일자리 확대, 민간 기업 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등으로 힘을 더한다.

더불어 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 환경 정책 추진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지역 곳곳에 나무 심기를 지속하는 한편 은계숲생태공원과 호수공원, 따오기문화공원, 곰솔누리 숲 등 숲과 수변공간 조성에 힘쓴다. 악취와 미세먼지는 선제적·과학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시흥에코센터 역할 확대, 시화호 콘텐츠 개발 등 시흥시만의 다양한 환경 정책을 발굴한다는 목표다.

2023년도 시흥시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보다 2.4% 증가한 1조 5,382억 원이며, 일반회계 1조 3,079억 원, 특별회계 2,303억 원이다. 정부의 긴축재정, 부동산거래 및 소비 위축 등으로 더없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의 일상 보듬기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면서도 대도시 기반 조성 및 핵심 사업 추진 등 시흥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임병택 시장은 "K-시흥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은 시흥의 미래 100년을 위한 길고 긴 여정이 될 것"이라며 "평범한 시민의 평범한 행복을 지키겠다는 한결같은 신념으로 시민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주는 일등도시를 향해 기꺼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성남을 시스템반도체 중심 도시로" 9개 기관 뭉쳤다

성남을 대한민국의 시스템반도체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해 9개 기관이 하나로 뭉쳤다.

성남시는 12월 2일 오전 10시 시청 3층 한누리에서 8개 기관과 '시스템반도체 성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 이날 협약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정영배 성남상공회의소 회장, 이서규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성명기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윤원중 가천대학교 부총장, 신동열 성균관대학교 총장, 이광형 KAIST 총장, 신희동 한국전자기술연구원장, 이윤식 반도체공학회장 등 각 기관 대표가 참석해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반도체 수요가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이 접목된 자동차·로봇·에너지·바이오 등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4차 산업 특별도시 성남'을 함께 이뤄나가려는 취지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총괄하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한다. 성남상공회의소는 시스템반도체 협력체계 추진을 위한 연합회를 구성해 관련 기업을 지원한다.

한국팹리스산업협회는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내·외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은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과 인력 육성, 테스트베드 구축을 지원한다. 가천대학교, 성균관대학교, KAIST는 시스템반도체 설계와 응용 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산학협력 공동 연구를 지원한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반도체공회회는 시스템반도체 기술 혁신과 연구개발, 사업화, 정책 자문을 한다. 성남지역엔 전국의 40%인 44개사의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이 밀집한 가운데 설계와 연구개발, 상용화 검증과 테스트, 인재 육성까지 전방위적인 협력 지원이 이뤄져 관련 산업을 부흥시키게 될 전망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앞선 7월 정부는 성남 제2, 3판교테크노밸리를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팹리스 중심 단지로 육성해 대한민국을 'K'자 모양으로 연결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번 협약과 시너지 효과를 내 시스템반도체 중심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용기자

www.gy1pick.kr

모바일 고양소식지의 새이름 고양원픽

맛한 소식과 정보를 원해? 모바일로 픽해!

고양원픽

GOYANG ONE PICK

고양원픽.kr

궁금하면 드루아~ 드루아~

고양원픽 홈페이지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

처인구보건소, 기흥구보건소, 수지구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처인구보건소 소속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기흥구보건소 소속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수지구보건소 소속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강영웅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청소년 월경통 치료가 장기간 소요됨을 고려해 대상자 선정 제한 사항 및 지원 기간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 만족도 조사 시 통증 개선 여부에만 국한하지 말고 학업성취도 향상 정도 등 진료로 인해 개선 가능한 부분에 대한 지표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경우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감소했고,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한 지원 확대 및 지속성 확보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상수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 수혜 대상과 관련해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우선 지원 및 대상자 수를 감안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는 한의약 치매예방사업을 취약계층에 우선 집

중하고, 사업 종료 시 사업 평가를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김운봉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시 연임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사업의 성격, 내용, 효과 등을 고려해 적정한 수의, 입찰 등 계약 방식을 선택할 것을 주문했다.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는 치매안심센터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추진 사업의 효과가 미비함을 지적하고, 치매 치료보다 치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선제적인 예방 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를 요청했다.

박은선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노인 무료 예방접종율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접종 독려 및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흥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는 공공 심야 약국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윤미 의원은 기흥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만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 사업의 집행 실적이 감소했음을 지적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및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수지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는 의·약업소가 법령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임현수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업 추진과 관련해 법적 의무 대상자 외 실생활 속 응급상황에 대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실태 조사를 통한 정확한 보급률 및 향후 수요 예측에 기반한 예산 편성, 차량 비치 등의 다양한 보급 방법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는 알레르기 제로 도시농부학교 등 사업 취지와 만족도가 우수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황미상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지역 주민들의 보건교육이 충족되도록 모던 건강증진형 보건진료소 증축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 지원 확대 검토 및 여성 청소년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수지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약사법 위반에 대한 사전 계도 및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조혜영/기자

포항시,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 따른 지역 기업 피해 최소화해 총력

파업 8일째 누적 피해액 1,300억 원, 다음 주부터 생산라인 중단 사태 우려

포항시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 이상을 지나면서 지역기업의 피해가 속출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파업 8일째인 1일 현재 포항 지역에서는 누적 피해액만 1,300여 억 원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철강 기업의 생산품 출하 중단, 시멘트 회사의 원료 미입고로 인한 생산 차질, 수출 컨테이너-중소기업의 물류 중단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비롯해 시멘트 공급 불가에 따른 건설현장 공사 지연, 인건비 상승 등 간접적인 피해가 겹쳐 그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심지어 다음주부터는 철강기업들이 사전 확보한 원자재까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생산라인 가동중단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철강은 국가기반산업으로 생산라인이 멈추고 제품 출하가 계속 지연되면 그 여파가 거의 모든 전·후방산업으로 미칠 것으로 내다보며, 정유 부분을 비롯한 철강 부분까지 업무개시명령이 추가 발동될 것인지 정부의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시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철강 기업들의 물류가 중단돼 계속 생산되는 제품 적체 장소도 마땅치 않아 생산 차질을 중단해야 할 것 같다는 기업 의견을 수렴해 장기 방치된 폐공장 및 야적장을 확보해 기업과 매칭할 방침이며, 야적장 임대료는 경북도와 협의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정부에서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국토부, 경북도, 경북경찰청과 협조해 점검반을 편성, 운송거부 신고 사항을 점검하고 있지만, 아직은 보복 우려로 생산공장, 운송사 모두가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관망하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시는 1일 시멘트 공장을 찾아 피해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생산품 출하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운송사의 비협조에 대해서는 즉시 신고해 업무개시명령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생산 시설을 갖춘 시멘트 공장에는 보복행위 및 불법 방해 행위 사전 차단에 위해 경찰도 상주토록 협조를 요청했다.

포항시는 지난달 24일 총파업 이후 매일 아침 경북도와 영상 정례 대책회의를 실시해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밤샘주차 단속과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파업이 길어질수록 지역경제와 시민생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운송사자의 복귀를 간절히 호소한다"며,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경북도와 협력해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타용/기자

담배 연기 NO!...은평구, 학교 통학로 주변 금연거리 지정

갈현초·선일여자중 통학로 주변 금연거리 지정

서울 은평구가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갈현초등학교와 선일여자중학교 통학로 주변을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쾌적하고 담배 없는 거리환경을 조성해 학생 건강권을 보호하고 학교 내의 흡연 예방과 금연 활동을 통해 금연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다.

이번에 지정된 금연거리는 서울갈현초등학교 인근 통학로 571m, 선일여자중학교 332m에 이르는 구간으로 학생들이 등하교 때 주로 이용하는 보행로다.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역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는 학교 주변 금연거리 지정 신청서를 접수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 및 인근 통행 주민 의견조사를 거쳐 지난달 29일 금역구역 지정을 마무리했다.

계도기간은 내년 2월 26일까지 약 3개월이다. 계도기간 이후엔 집중 단속에 들어가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앞서 구는 지난달 28~29일 금연 문화 대학을 위해 이번 금연거리로 지정된 학교 통학로 주변에서 학생들과 함께 금연거리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구는 매년 현장 조사와 면밀한 검토



를 거쳐 학교 주변 통학로 금연거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금연환경 조성, 금연클리닉 운영, 찾아가는 금연 사업 등을 추진해 담배 없는 도시 은평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은 필수"라며 "주민 건강과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영동군, 화물자동차 불법설치물 합동특별단속(2차) 실시

충북 영동군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충청북도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영동지사와 합동으로 영동IC에서 화물자동차 불법설치물 2차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0월 5일 1차 단속이 이어, 화물차 판스프링으로 인한 최근 잇단 사고로 주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덜고자 실시한 특별단속이다.

이를 통해 통행차량 파손 및 주민안전 위협 등 사고를 효과적으로 사전 예방하고자 유관기관간 힘을 모았다.

이번 합동특별단속은 △적재제한을 판스프링 설치 여부 △화물차 난간대 불법 구조 변경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 여부 등을 집중단속했다.

단속은 한국도로공사 영동영업소(영동IC)에서 추진됐으며 틀게이트를 통과하는 화물자동차 중 불법설치물



의심차량 발견시 갓길 유도 후, 검사 단속했다.

총35대의 화물자동차 가운데 2대를 판스프링 불법튜닝으로 적발했으며, 군은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박수철 건설교통과장은 "화물차 판스프링 등 불법설치물은 후행차량 운

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위 흉기'나 '마찬가지이다'라며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완주군의회 행감 6일차, 불법건축물 단속 강화 요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주민여론 수렴해 추진 당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30일 6차 일정을 시작하며, 막바지에 들어섰다.

행정사무감사 6일차 일정은 건축과를 시작으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 사무소 순으로 진행했다.

이주갑 의원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구비 및 철저한 안전교육으로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성종기 의원은 한옥 건축시 자체의 단가 높고, 신축 시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만큼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촌 주택개량 사업처럼 한옥 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소방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이순덕 의원은 옥외광고물과 관련해 지정계시대를 확충 및 철저한 유지보수를 요구하고, 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갑 의원은 소양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것과, 공익적 이유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동의는 필수라고 강조하고, 공모단계에서부터 발생된 문제로 주민의 피해와 손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김규성 의원은 고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지연은 공모단계에서 군비 부담비를 조정 협의가 안됐기 때문이라며, 해당 과정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 지역에 맞는 공공주택 건립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김재천 의원은 농촌진입 정비사업과 관련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파악해 귀농귀촌인들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건축물 인허가, 불법 가설건축물 및 불법 건축물 단속 강화,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등 폭넓은 분야에 질의를 이어갔다.

김광수/기자

세종시, 미세먼지 그만!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세종특별자치시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관내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시행한다.

시는 배출가스 점검반을 편성해 배출가스 측정기,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해 운행 중인 차량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단속과 공회전 차량 단속을 같이 진행한다.

차고지, 터미널 등에 정차하고 있는 대형 경유차량은 배출가스 측정기를 이용해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차량 이동량이 많은 도로변에는 비디오 카메라로 매연도를 판독해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공회전 단속은 관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공회전 제한시간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

차량 공회전은 2분을 초과하면 안되며, 기온이 25℃ 이상이거나 5℃ 미만 경우에도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측정 당시 기온이 영하인 경우 자동차 난방장치 작동이 불가피해 별도 단속은 실시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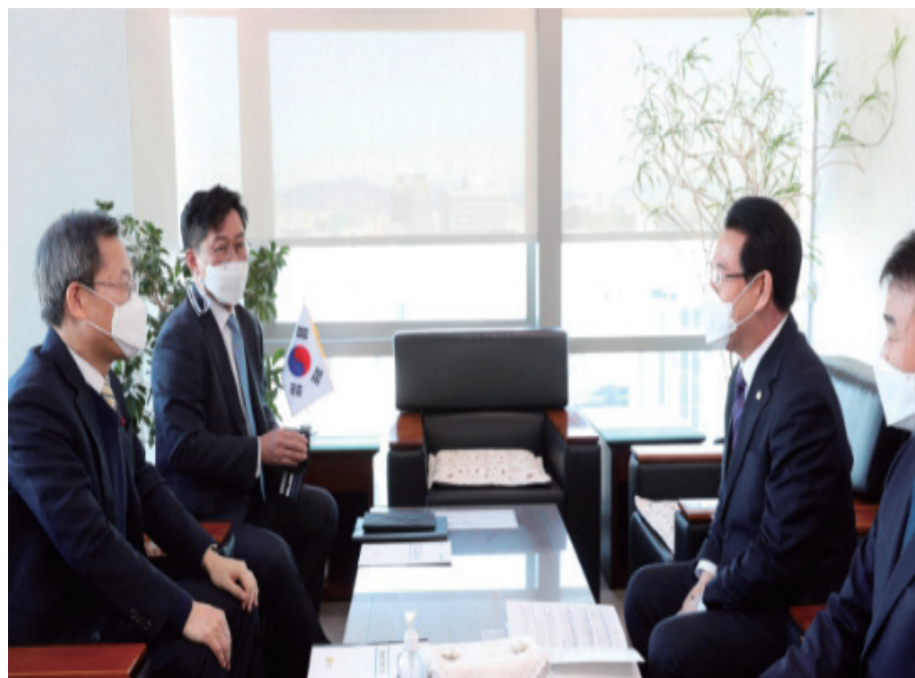
시 관계자는 "대기가 정체되는 기간에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주변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다"라며, "겨울철 공회전을 최대한 자제하고, 차량의 매연이 과다 발생하는 경우 점검·정비하는 등 시민들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과기부에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등 건의

2일 이종호 장관에게 전남 미래 100년 위한 과학기술 분야 현안 요청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등 전남 미래 100년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 주

요 현안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을 비롯해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개발

(R&D)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평가항목에 '지역균형발전' 반영, 강소연구개발특구 예타 평가대상 선정 등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 우주항공, 국방, 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의 핵심 요소기술로 손꼽히는 레이저 원천기술 선점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이 국가 기초연구발전과 첨단산업에 기여하도록 '레이저 기술'을 과학기술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후보 부지를 조속히 선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안정적 기반과 우수한 정주여건을 갖춘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는 세계 유일의 에너지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비롯해 국내 레이저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광주과학기술원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고흥 나로 우주센터와

연계한 민간주도의 우주개발 기업유치 및 지역거점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특화산업 조성 등 핵심사업 예타 통과를 바랐다.

이와 함께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증가에 따른 수용성 제고와 미래 우주산업 육성에 필요한 우주과학 교육, 체험시설 구축을 위한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도 건의했다.

김 지사는 "국가 연구개발 예타사업은 일반 예타 사업과 달리 평가항목에서 '지역균형발전' 중요도가 낮아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 쏠리는 경향이 있다"며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타조사 운용지침'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발전 없이는 지방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남도의 현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병수기자

해남군, 2023년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공모 선정

우수영관광지 등에 무장에 관광 동선 구축 등 관광활동 여건 개선



해남군이 2023년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문화관광체육부의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이나 임산부 등 '관광약자'가 관광지 내에서 불편함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무장에 관광 동선을 구축하고, 무장에 관광 정보 제공, 무장에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은 우수영관광지와 송호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휠체어를 타고 관광지

구석구석을 돌아볼 수 있도록 무장에 관광 동선을 개발·구축하고 점자 안내 체계, 리플릿 등 무장에 관광 안내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인증) 전문가들의 맞춤형 현장 컨설팅 이후 내년도 상반기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명령관 군수는 "해남군 대표관광지의 무장에 관광 동선을 구축하여 모든 방문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관광약자들도 찾아오기 쉬운, 다시 오고 싶은 해남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광남기자

나주시,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경진대회 '환경부 장관상' 수상

전국 지자체 중 사업 운영 부문 '우수기관' 선정

전라남도 나주시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 주관한 '2022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사업 운영 부문 우수기관에 선정,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은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실적, 집하장 운영, 홍보, 노력도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사업을 시행한 이래 자원 순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시민의 배출 편의 향상, 배출수수료 면제 등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정책 발굴, 방문수거 서비스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중·소형 폐가전 수거 체계 개편'을 민선 8기 출범 후 100일 이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정하고 공동주

택 34곳에 중·소형 폐가전제품 전용수거함 127대를 보급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에는 중·소형 폐가전의 경우 5개 이상을 묶어 별도 수수료를 부담해 처리해야했지만 전용수거함이 설치된 이후부터는 수량이 상관없이 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게 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 11월 기준 약 280t에 달하는 폐가전제품 1만484개 수거실적을 달성했다.

시는 이밖에도 '범국민 폐가전 대청소의 날'(집중수거 캠페인), '폐가전제품 집하장 시설개선', '환경미화원과의 상호협력' 등에 대한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윤병태 나주시장 "민선 8기 100일 이내 해결 과제로 역점 추진했던 중·소형 폐가전제품 수거 체계 개편에 따른 공동주택 전용수거함 설치 등 정책적 성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



조에 힘입어 전국 지자체 우수기관 선정, 환경부장관상 수상이라는 보람찬 결실을 맺었다"라고 밝혔다.

윤 시장은 이어 "민선 8기 2050탄소중립 실천과 자원순환 사회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폐가전제품 수거뿐만 아니라 종량제 봉투 공급체계 개편,

폐건전지·폐합성수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업무협약, 영농 폐기물 처리 종합대책 마련,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등 다각적인 정책 입안과 추진에 최선을 다해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무안군, 2022 부산 유기농·친환경·귀농귀촌박람회 참가 성료

1:1 맞춤형 귀농 정책 상담 및 농특산물로 무안군 홍보

전남 무안군은 지난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2022 부산 유기농·친환경·귀농귀촌박람회에 참가해 무안군의 귀농귀촌 홍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부산 MBC에서 주최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귀농귀촌 세미나', '지역관광 특별전', '우리문화 체험관'과 같은 부대행사가 진행됐고, 그 밖에도 친환경 유기농 식품, 전통식품, 도시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업체가 참가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특히 군은 홍보부스를 운영함으로써 무안군의 농·특산물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 인지도 제고에 힘썼으며,

1:1 맞춤 귀농귀촌 상담부스를 마련해 2023년도 무안군만의 귀농귀촌 정책을 알리고 도시민 귀농귀촌 유치에 주력했다.

더불어 무안군으로 귀농한 농가의 판매부스를 운영해 농가의 생산품 홍보와 판매를 지원함으로써 귀농농가의 인지도 상승과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줬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무안군과 무안군의 농·특산물을 알리고, 귀농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한 좋은 자리였다"며 "도시민들이 향후 귀농귀촌 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역할이 되는 자리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광남기자

박홍률 목포시장, 4대 주력산업 육성으로 큰 목포 만들 것

2023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

박홍률 목포시장이 30일 제379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 실현을 위한 올해 주요 성과와 내년도 주요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올해는 민선8기와 제12대 목포시의회가 함께 출범한 뜻깊은 한해이자 목포의 100년 대계를 이루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해"라고 강조하며, "내년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상생과 화합, 소통의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목포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준비해 나갈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박 시장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역 주요 이슈들로 운을 떼며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시민을 위한 시내버스라는 대원칙에 따라 추후 제시될 개선방안에 대중교통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삼학도 호텔 건립과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사업추진 여부와 방식을 결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시정연설에 따르면 내년도 주요 시정 운영방향은 ▲목포만의 4대 주력산업 육성 ▲전국 규모의 행사 및 대형박람회 개최 ▲미래인재 양성을 통한 교육도시의 명성 회복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가치로 하는 살기 좋은 도시 조성 ▲전남 서남권 공동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더 큰 목포 실현 등이다.

박 시장은 목포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청년을 위한 4차산업, 친환경 조선산업,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체류형 관광산업"을 4대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전국 규모의 행사 및 대형박람회 개

최와 관련해서는 내년 10월 예정된 제104회 전국체전을 시작으로 문화예술 엑스포, 2028 세계 섬 엑스포, 국제 수산식품 김 박람회 등 스포츠 및 해양문화관광 중심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청사진을 제시했다.

미래인재 양성을 통한 교육도시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교육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교육정책 전달할 인재육성과 신설, 전남 서부권 진로진학상담센터 개소, 맞춤형 컨설팅 지원 강화, 중·고등학교 옥암지구 재배치 등을 실행

방안으로 언급했다.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가치로 하는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으로는 첫 만남 이용권 포함 출산축하금 최대 700만원까지 확대, 가족친화형 복합교육문화공간 조성,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급, 어르신 무릎·백내장 수술비 지원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숙원인 무안반도 통합은 지역주민 주도로 신안군과의 1단계 통합부터 이뤄내 전남 서남권 공동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큰 목표를 실현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시가 편성한 2023년도 본예산안은 총 9,499억원으로 이는 올해 본예산 8,901억원의 6.72%인 598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내년도 본예산안안은 사회복지 분야 3,925억원, 문화 및 관광·교육 분야 963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환경 분야 1,221억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409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76억원, 보건분야 220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29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56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06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끝으로 박 시장은 "1,800여 공직자와 함께 민귀군경(民貴君輕, 국민은 귀하고, 지도자는 가볍다)의 뜻을 새기며 앞으로도 시민을 존중하는 행정, 시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병명기자



영광군, 2023년 '한국민속예술제' 개최지 공모 선정

영광군은 지난 2일, 내년에 열리는 '제64회 한국민속예술제' 개최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고 밝혔다.

1958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한국민속예술제'는 전통 마을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각 지역의 대표 민속예술 경연과 함께 체험, 전시,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

탈춤(1961), 강강술래(1961) 등 11개 종목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80여 개 종목의 국가 및 지방무형문화재 지정에 이바지해왔고, 1994년 청소년 부문 경연을 신설하여 우리 민족 고유의 삶이 담긴 민속예술을 다음 세대에 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국의 민속 예술인들이 모이는 '한

국민속예술제'는 전국 16개 시·도와 이북 5도에서 출전하는 일반부, 청소년부 등이 대통령상을 두고 치열한 경연을 벌인다. 이외에도 민속예술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여러 공연이 더해져 사천행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22일까지 매주 주말에 실시하고 본행사는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영광 스포티움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전국의 민속예술이 한자리에 모이는 신명의 한판이 영광에서 펼쳐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한국민속예술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광남기자

정읍시, 청년의 꿈과 미래를 위한 청년정책 추진 '온 힘'

2일, 청년 정책위원회의 열고 추진실적·시행계획 등 심의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정읍시 청년 정책위원회'회의가 2일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청년 정책위원회는 지역 청년의 능동적인 시정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로 청년정책 제안과 심의, 자문 등을 담당한다.

청년들의 시정 참여 활성화와 소통 기반 강화를 목표로 청년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다각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다.

2020년 청년정책·임금·법률·일자리·문화 등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해 출범했으나, 지난 10월 지역 청년과 여성위원의 비중을 높여 재구성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정읍시가 추진한 주요 청년정책의 실적·진단·평가하고, 내년도 시행계획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최재용 부시장과 이용관

성장전략실장을 비롯해 정책위원회 위원들과 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여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오늘날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감하며, 앞으로 청년정책의 추진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최재용 부시장은 "청년들과의 소통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며 "청년정책의 당사자인 청년으로부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0년 4월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 청년지원 조건에 대한 토대를 다졌다. 지난해 5월에는 청년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만들어 지원책을 구체화하고, 청년발전기금 운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하은/기자

전북도, 지역특화형 비자시범사업 1차에 이어 추가 공모도 선정

범무부가 내년부터 지역사회의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을 목적으로 시행하게 될 '지역특화형 비자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순창군과 고창군, 부안군 등 3개 시군이 추가로 선정됐다.

이로써 전북은 지난 9월 1차 공모에서 정읍·김제·남원시 등 3개 시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데 이어 3개 군지역이 추가됨에 따라 도내에서는 모두 6개 시·군이 선정되어 앞으로 우수한 외국인 유치와 정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 산업·일자리에 맞는 외국인 정착을 유도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실현이 확장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에 따르면 범무부가 5일 '지역특화형 비자시범사업'에 대한 추가 공모를 실시한 결과, 이들 3개 군지역을 최종 대상으로 선정하여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

법이 시행되는 '23. 1. 1.부터 추진되게 된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지방의 인구감소 해소를 위해 김관영 전 부지사가 대통령에게 건의 등을 통해 만들어진 전북 주도 국가의제(아젠다, agenda)인 만큼, 전북 도는 지난 9월 첫 선정 이후 ①인구감소지역 수요조사와 지역 산업군 현황을 고려해 순창·고창·부안을 추가 사업대상지로 정하고, ②기업체의 외국인 인력 수요를 조사하는 등 치밀하게 공모사업을 준비해 왔다.

전북도는 이번 추가 공모 선정을 위해 지난 11월 11일 산·학·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자체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대학은 실무형 인재 양성 교육을, 산업계는 현장실무교육 개발에 주력하는 내용의 '외국인 우수인재 지역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도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및 예정자를 기업과 매칭해 지역특화형비자가 발급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유학생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지 않고 지역에서 계속 일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생활정보 제공 및 상담 등 지역적 맞춤형 지원과 외국인 기술교육(자동차, 기계차운전 기능사 등) 전북 친화 외국인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역특화형 비자를 부여 받은 외국인이 지역주민과 소통·교류를 통해 지역에 장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소통 사업을 발굴하는 '외국인 주민 '전복사' 만들기 프로젝트'도 가동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1차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정읍시·김제시·남원시를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유형 비자 추천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를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역특화형 비



자 시범사업'은 외국인 우수인재의 지역 정착을 통해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 사업으로 공모 선정에 안주하지 않고 실질적 결실을 거두겠다"며,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전라북도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완주군 2023년도 예산안 8,183억원 편성, 건전재정 기조 유지

유희태 군수, 5일 오전 '제272회 군의회 제2차 정례회'서 설명 예정

완주군의 2023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129억 원(1.57%) 늘어난 총 8,183억 원으로 편성돼 군의회 심사에 들어간다. 완주군은 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응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고른 성장을 위해 농업과 문화, 산업 등 전 분야에 예산을 골고루 배분했다는 방침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5일 오전 10시에 열릴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예산안과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완주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총 7,748억 원으로 전년대비 117억 원이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12억 원이 증가한 435억 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전년대비 4억2,000만 원 증가한 951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세외수입은 9억6,000만 원 늘어난 316억 원이었다.

지방교부세는 119억 원이 증가한 2,840억 원, 조정교부금은 16억 원이 늘어난 161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65억 원이 감소한 318억 원이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와 농림해양수산 분야

가 각각 2,244억 원과 1,256억 원에 달했고, 환경 797억 원, 문화와 관광 48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64억 원, 산업과 중소기업 및 에너지 355억 원 등이었다.

또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에 175억 원이, 보건 분야에 110억 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며, 기타 분야에 1,046억 원이 편성됐다.

특별회계의 경우 공기업 특별회계는 305억 원이,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 총 130억 원이 편성됐다.

완주군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로 SOC와 농업, 문화, 산업 등 전 분야에 예산을 고루 배분했고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강화에 따른 매칭과 대규모 시설사업의 조기종료에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유 군수는 오는 5일 '2023년 예산안과 운영방향'에 대한 군의회 설명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완주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만큼 2023년을 민선 8기 원년으로 삼아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 도시 완주 실현'을 위해 더 큰 도약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의회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김광수/기자

전주시 공동체 어울림 심포지엄 개최

공동체들, 그간의 활동 공유하고, 네트워크 형성, 공동체 지향성 모색하는 기회 가져

전주지역에서 활발히 활동중인 공동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어울림 한마당을 열었다.

전주시는 2일 더메이호텔에서 온두레공동체 회원과 마을관리공동체 회원 및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그간의 활동에 대해 점검하고, 공동체의 지향성을 수립하기 위한 '공동체 어울림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난 2015년부터 활동해온 전주지역 온두레공동체와 마을관리공동체들은 교육과 공예, 생활문화, 지역문제 해결, 마을 의제 발굴 및 실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웃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힘써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공동체 활동 영상 시청, 우수공동체·유공 단체 시상, 나의 공동체 이야기, 공동체 네트워크 워크숍, 공동체 지향성 모색을 위한 원탁회의, 개별 네트워크 시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식전공연으로 온두레공동체 '도안·이음·희망' 단계를 모두 마치고 지난 2020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활동하는 느루걸음 공동체의 '느루걸음장래인양상불연주단'의 공연도 더해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그간 활발히 활동해온 5개 온두레공동체와 3개 마을관리공동체(마을계획수립) 등 우수공동체에게 전주시장상이 수여됐다. 이어 '나의 공동체이야기'에서는



2017년 디딤단계 공동체인 '전북문학사관'의 서귀석 대표, 2017년 희망안료 공동체인 '천사길사람들' 및 노송동마을관리공동체의 김성국 대표, 2022년 이음단계 공동체인 '나는길이다공동체'의 박동진 회원, 양경란 전주시공동체 협의회장 등 4명이 그간의 활동 내용과 문제극복 사례 등을 다른 공동체들과 공유했다.

공동체 회원들은 또 공동체 네트워크 워크숍과 개별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공동체에 대해 알아보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외에도 시는 공동체 지향성 모색을 위한 원탁회의를 통해 2~5개 동아리 하나의 권역을 이뤄 완산구 6개 권역과 덕진구 4개 권역 등 총 10개 권역별로 팀을 이루어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향할 목표와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탁회의에서는 권역별 퍼실리테이터가 공동체 회원들이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공동체 회원은 "공동체의 활동을 공유하고, 공동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 뿐 아니

라, 공동체의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해보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이 시민들에게 공동체 정신이 전파되고 확대되는 계기가 되고, 공동체들이 타 공동체들과 상호연계 및 협력해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동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공동체들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남원시, 바자회로 얻은 수익금 지역사회로 GO GO!



남원시는 지난 1일 남원시가족센터가 관내 청소년 30명에게 30만원씩 총 900만원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관내 10개소 고등학교, 청소년 기관,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추천으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됐다.

이번 장학금은 지난 10월 행복 나눔 바자회로 마련한 수익금(690만원)과 정기적인 후원금(210만원)으로 준비됐다.

장학금 지원을 받게 된 이**은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에 수시 합격한 사실도 기쁘게 덤으로 장학금까지 받게 되니 감사하면서 행복하다"라

고 소감을 밝혔다. 남원시가족센터가 10년 동안 행복 나눔 바자회로 얻은 수익금은 누적 6천만원으로 2013년부터 4년간 56가구에 난방비를 후원했고 2016년부터는 대학 진학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7년간 149명에게 지원해 오고 있다.

차미화 여성가족과장은 "매년 행복 나눔 바자회를 열어 그 수익금으로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남원시가족센터 종사자들과 바자회에 참여한 남원시민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군산시 "농업재해, 농작물 병해충 대응 분야 전국 최고"

농촌진흥청, 농업재해대응 우수기관 경진대회 대상 수상

군산시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2022년 식량안정생산 기술 보급사업 추진 종합평가회에서 진행된 "농업재해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하며 농업재해, 농작물 병해충 대응분야에서 전국 최고 농업기술센터임을 입증했다.

2일 대전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진행된 종합평가회는 전국의 농촌지도기관과 지도공무원이 참여하여 농업재해대응, 농작물 병해충 예방방제, 가축질병 차단방역 업무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심사를 거쳐 우수기관과 담당자를 선정했다.

특히 군산센터는 지난해 크게 발생하여 피해를 겪었던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의 철저한 방제가 농업인 소득 향상에 큰 영향을 만큼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 홍보와 현장지도에 총력을 쏟아왔다.

먼저 특정 품종 재배비율이 80%를 넘으면서 병해충 확산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품종다변화를 진행하여 특정품종 풀럼 현상을 완화하

고, 병해충 발생을 회피하기 위하여 18년만에 신동진벼 재배 메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건강한 벼 생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평당 50주 드문모 재배기술을 적극 보급하여 1모작의 44.8%까지 면적을 확대 시키는 등 농업인교육과 홍보에 노력을 다했다.

또한 보다 정밀한 병해충 발생정보 제공을 위하여 기존 1개소에서 운영했던 병해충 예찰소를 4개소로 확대했으며 예찰장비도 보강하여 3개소에 해충 밀도조사를 위한 유아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매주 2회 조사를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병해충 적기방제에 도움을 주었다.

이 밖에도 과수화상병 청정지역 유지, 과수 돌발해충 방제지원,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가압 확대,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목과 기술보급 노력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농업기술센터 신동우과장은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역할인 농업인 소득증대의 기초는 농작물 병해충 피해 최소화와 농업재해예방에서 시작



되는 만큼 지도공무원 모두가 현장에서 땀 흘려 가며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기에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농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정선군, 관광앵커시설 활성화 “아리랑 마을 모꼬지” 행사 개최

정선군에서는 2일 정선을 봉양리에 위치한 아리터에서 “함께하는 리메이크 아리랑”을 부제로 “아리랑 마을 모꼬지” 행사를 개최했다.

“아리랑 마을 모꼬지” 행사는 지난 2020년 선정된 아리랑 마을 조성사업의 관광 앵커시설인 “아리터”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지역주민 및 상인, 맹글러, 마을여행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을여행 콘텐츠 생산 및 커뮤니티 공간 개발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리터 현황 및 향후 아리랑 마을 조성 추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아리아라리 공연팀의 아리랑 퍼포먼스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김광진 관광과장 정선PD와 정선군 관광과 주민사업팀인 레몬트리협동조합(대표 최진아)이 기획하여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어 관광

두레의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잡고 있는 “맹글장 레일마켓”이 함께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다.

특히, 맹글러들의 특색있는 곤드레 디저트, 페인트 아트, 코바늘 수세미, 우드 액자, 우드소품, 곤드레 소금빵, 곤드레 소금, 인견수세미, 개복숭아 콤팩트 등과 함께 정선의 로컬 식재료를 활용한 디저트 쿠키, 사과 젤리 등 관광상품들을 전시·판매해 많은 인기를 끌었다.

김영환 문화관광과장은 오늘 개최한 아리터를 비롯해 아리랑 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맹글장을 비롯한 관광두레 주민 사업체 및 상인, 주민들이 함께 식음·기념품·체험프로그램·예술 공연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전 세계 자율주행 전문기업 ITS세계총회 개최지 강릉에 큰 관심

호주·뉴질랜드 등 자율주행 분야 국내외 기업과의 협력 기대

‘2026년 ITS세계총회 개최도시’로 강릉시가 선정된 후 국내외 많은 기업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뉴질랜드 자율주행 서틀회사 오미오(OHMO) 그룹 회장단은 2일 강릉을 방문하여 ITS세계총회 대비 모빌리티 서비스 발굴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ITS의 대표적 차세대 기술은 자율주행으로 강릉시는 중소 도시형 자율주행 모델을 선도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관광형 자율주행차량 운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주요 관광지 세 개 노선, 총 15.8km 구간에 자율주행차량 5대를 시범 운행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공용버스노선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중심으로 ‘벽지노선 자율주행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 연계 자율주행과 교통약자를 위한 수요반응형 자율주행을 통해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실제 노선 운영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스타트업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교통서비스 개선과 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2026 ITS 세계총회 유치 이후 강릉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국내외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2026년까지 상용화 단계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주행차 선도도시로의 도약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기대하고 있다”며 ITS의 활용방안을 밝혔다.

이동원/기자

강릉시, “2023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12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참여자 신청 및 접수

강릉시는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2023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강릉시니어클럽 외 3개 수행기관 및 읍·면사무소, 강남동, 성덕동, 경포동 주민센터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접수할 예정이다.

모집은 3가지 분야로, 공익활동형은 미화 및 환경정비 등의 활동을 하며 4,980명을, 사회서비스형은 취약계층의 사회적 돌봄 등에 관련된 일자리를 550명을, 시장형은 사업 수익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8명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공익활동의 경우 강릉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며, 일부 유형에 한해서는 기초연금수급과 상관없이 만 60세 이상도 신청 가능하다.

단, 생계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 기관 일자리사업 참여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는 신청할 수 없다.

공익형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본상 동거인의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증빙하는 중증장애인 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과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해당자에 한함)를 구비하여 읍·면과 3개동(강남동, 성덕동, 경포동) 및 강릉시니어클럽,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사)대한노인회강릉시지회, 유경노인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장형 참여 희망자는 강릉시니어클럽, 사회서비스형 참여 희망자는 강릉시니어클럽, (사)대한노인회강릉시지회, 강릉종합사회복지관에 위와 동일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일자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생활에 보탬이 되고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양양군, 희망2023 나눔캠페인 성금 모금 전개

내년 1월 31일까지 모금액 1억 3천 7백만 원 목표

양양군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불우이웃을 돕는 따뜻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양양’이라는 슬로건으로 ‘희망2023 나눔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군민과 사회단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 간 진행되며, 양양군은 1억 3천 7백만원을 목표로 모금활동을 추진한다.

군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군청과 읍면 지정계시대 등에 홍보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 영상을 전광판과 DID에 송출하며, 포스터와 리플릿을 각 기관·단체, 마을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희망2023 나눔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품은 당일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송금되어 적립되며, 모금이 마무리되면 각 시군별로 재배분되어 긴급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저소득층 주택개보수사업 등을 통해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될 예정이다.

모금에 동참하고자하는 사람은 △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모금함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계좌 △ARS(회당 3천원) △QR코드 등을 통해 쉽게 참여할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며, 소득세법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도 작년처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나눔캠페인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역에 따뜻한 기부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고성군, 2023년도 예산 4,337억원 편성, 올해보다 289억원 증가

고성군수는 12.1(목) 제33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하여 2023년 본예산안을 2022년보다 289억원(7.14%) 증액한 4,337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310억원(8.1%) 증액한 4,14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1억원(△9.9%) 감액한 194억원이다.

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사항을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46억원(31.8%)이 증액된 344억원, 지방교부세는 180억원(9.5%)이 증액된 2,073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83억원(5.5%)이 증액된 1,557억원이며, 조정교부금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동일한 각각 105억원과 63억원을 편성했다.

세출예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민선 8기 공약사항, 지역경제 회복과 역점 투자개발사업 확대 및 사회 안전망 강화, 군

민이 체감하고 혜택을 누리는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에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내년 예산편성(안) 중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교육 분야가 올해보다 212.1% 증가한 97억원, 문화및관광 분야 43.1% 증가한 587억원, 국토및 지역개발 분야 8.5% 증가한 300억원, 환경 분야 6.1% 증가한 564억원 순이다.

주요사업으로 고성 해경경관지구 시범사업 159억원, 고성군 청사(별관) 증축 30억원, 평화·통일 영원 DMZ 스카이라드 조성 32억원, 고성 불림센터 신축 52억원, 하수처리시설 토성정설 92억원, 용춘리 플라워 가든 조성사업 32억원, 초도항 어촌뉴딜 300 35억원, 주차환경 개선사업 30억원 등이다.

고성군의 내년도 예산(안)은 고성군의회 정례회 의결을 거쳐 12월 20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동원/기자



김진태 지사, 화천군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계류장 전격 방문... 노후헬기 안전성 점검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2월 2일 화천군 간척면의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계류장을 전격 방문하여 헬기의 안전성을 점검했다.

강원도 산불방지센터는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도내 7개 시군에서 민간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운영 중인 산불 임차헬기 8대의 운용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산불출동 대기장소, 종사자 교대현황 등 근무여건, 탑재용 항공유리지 작성 여부, 관련 종사자 자격 및 안전교육 이수현황 점검, 비인가 인원 탑승여부 등 관련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

지난 11월27일 양양군에서 추락한 산불진화용 헬기에 기장과 정비사

를 제외한 미신고 인원의 탑승 경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인 바, 헬기의 실제 탑승 인원에 대한 현장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도록 했다.

또한 양양군에서 추락한 헬기는 1975년 제작되어 47년이나 된 노후헬기로 밝혀진 바, 이날 김진태 지사가 점검한 화천군의 산불진화용 헬기 역시 1987년 제작되어 35년째 운용 중인 노후헬기이며, 도내 임차헬기 8대 중 6대가 제작년지 30년이 넘는 노후헬기로 확인됐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임차헬기와 관련된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 특히 실제로

헬기를 임차해서 운용하는 지자체의 목소리가 담겨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헬기 탑승 인원에 대한 실질적 모니터링 방안과 노후화된 도내 산불진화용 헬기를 안전성과 능력이 높은 신형 헬기로 교체할 방안을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지자체에서는 민간임차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와 안전성을 상시 점검하겠으며, 정부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시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강원권 국립호국원, 2028년까지 강원 횡성군 공근면 덕촌리에 조성

국가보훈처는 강원도 횡성·양구·영월군으로부터 접수된 강원권 국립호국원 유치 희망지 7개소를 대상으로 최종 평가한 결과,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덕촌리 일원을 강원권 국립호국원 조성 부지로 최종 선정·발표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21년도에 강원도로부터 호국원 조성을 위한 7개 후보지를 제안받아 올해 입지타당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유치제안서를 제출한 3개 군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부지선정 평가단을 구성하여 최종 선정평가회(‘22.11.29.)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대상 부지를 최종 선정했다.

부지선정 평가단은 건축·토목·교통·환경 등 각 분야별 외부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했으며, 평가단은 타당성 연구용역 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전평가와 항목별(법적,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등) 요건을 검토한 전문가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안장 수요에 대비하여 국립묘지 안장 능력 확충 및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권역별로 국립묘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번에 조성하는 강원권 국립호국원은 2028년까지 총사업비 433억 원을 투입, 2만기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국립묘지를 단순히 고인을 기리고 추모하는 공간만이 아니라 역사를 기억하며 체험하는 공간, 자연과 더불어 휴식하는 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립묘지가 조성되면 안장자의 유족뿐만 아니라 학생, 시민 등 방문객이 증가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겐 안보 교육 및 나라 사랑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고, 업무 관련 종사자 채용 및 시설공사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강원권 국립묘지는 7번째로 조성하는 국립호국원으로, 강원권과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는 안장 대상자분들께 최고의 예우를 갖춰 안장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구현하는 최고의 국립묘지가 될 수 있도록 강원권 국립호국원 조성에 최선을 다할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안장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반드시 2028년에 개원할 수 있도록 토지

보상,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인허가 절차 등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영동와인, 코로나19 속에서도 여전히 위용 과시

블뤼농장 '시나브로 청수 화이트',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최우수상



K-와인 선두주자, 충북 영동와인이 와인 관련 품평회에서 품질을 인정받으며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다.

2일 군에 따르면, 최근 대한민국 와인 주산지 영동군의 블뤼농장이 2022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우리술품평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우리 술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한 상품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국가 공인 품평회이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블뤼농장 '시나브로 청수 화이트'는 2021년 9월 열린 제8회 한국와인대상 실버상에 이어 2019년 우리술품평회 과실주 부문 최우수상, 2021 우리술품평회 과실주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뛰어난 맛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와인이다.

이 시나브로 청수 화이트는 레몬색의 시트러스 향, 열대과일 향 등이 풍부한 상큼한 와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블뤼농장은 농가형 와이너리 전국 최초로 HACCP 인증을 받았으며 온 가족이 소릴리에 자격증을 취득했다.

2020년 찾아가는 양조장에 선정되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와이너리 체험을 제공하는 농가형 와이너리의 훌륭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군 와인산업 관계자는 "블뤼농장은 직접 농사지는 포도를 이용하여 와인을 양조하는 모범적인 와이너리로 그 깊은 맛과 향을 아주 잘 잡는 곳인데 이번에 또다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라며 "영동와인이 이젠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김원호/기자

충남도, 서해권 탄소포집·저장·활용 '첫발'

기후위기 주범 '탄소' 해양 지중에 격리하고 화학소재 등으로 활용

충남도가 기후위기 주범으로 꼽히는 탄소를 영구 격리하거나, 화학소재로 활용하는 기술 개발 사업에 본격 나선다.

김태홍 지사는 2일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대회의실에서 원성수 공주대 총장,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 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안병희 한국석유공사 ESG추진실장, 권이균 한국 CCUS추진단 단장과 '서해권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상용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CCUS는 발전 및 산업체 등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 발생시킨 탄소를 포집한 후 화학소재 등 유용 물질로 활용하거나 해양 지중에 저장하는 기술이다.

탄소포집저장(CCS)의 경우, 발전소 등이 배출한 탄소를 육지 허브터미널에서 모아 해저배관을 통해 해저 지중으로 보내 저장하는 방식이다.

해저에 저장된 탄소는 지하수와 만나 석회석으로 서서히 변하며 영구 격리된다.

현재 산업부는 배출 탄소를 동남권, 서해권, 중부권, 남해권 등 4개 권역 대륙봉 심부 지층을 활용, 저장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해권 저장소는 보령 서쪽 170km



앞 바다에 위치, 시추 등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해권 저장소 용량은 약 4억 톤 안팎으로 보고 있다.

도는 서해권 저장소를 통해 2050년경 연간 1000만 톤 이상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서해권 저장소 개발과 연계한 탄소 포집, 활용, 이송 및 저장 등 CCUS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라 도는 포집 탄소 이송 및 활용 관련 시설 설치·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하며, 행정적 지원을 편다. 공주대는 포집, 이송 및 저장 테스트베드 운영 등을 통해 CCUS 기술 개발 업무에 적극 협력한다.

석유공사는 서해권 저장소 구축, 이송 및 감시 설비 구축 등 저장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

중부발전은 서해권 저장소 개발과 연계한 탄소 포집 기술 고도화, 포집 설비 운영과 탄소 저장소 공급에 관한 업무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탄소 저장 및 활용을 위한 연구와 기술 개발에 협력

하고, 화학연구원은 이송 배관 내 탄소 대규모 활용을 위한 연구와 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CCUS추진단은 서해권 CCUS 상용화를 위한 실행협의체를 운영하고, 상용화 관련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태홍 지사는 "우리 도는 탄소중립 실현을 넘어 산업 구조 혁신,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충남이 CCUS 사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유치와 기술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해 국가보다 5년 앞선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그린 충남' 비전을 발표했다.

지난 10월에는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언하며,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시스템과 경제·산업 구조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활용해 탄소중립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최정근/기자

청주시, 전국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환경부장관상 수상

'용두천' 2022년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로 선정

청주시는 환경부가 주최한 '2022년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최종 평가에서 용두천이 환경부장관상(장려상)을 수상하게 됐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는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 중 사후관리가 우수한 하천을 선정하는 것으로 지방환경청의 1차 평가를 거쳐 환경부에서 최종 6개 사례를 선정했고 12월 전국 우수 사례집으로 발간된다.

'용두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오창 저수지에서 오창 가좌교까지 5km 구간에 대해 89억 원(국비 60%, 지방비 40%)을 투입해 지난 2018년 9월에 준공됐다. 용두천 상류의 오창 저수지로 인해 단절된 생태계를 개선했으며, 보 개량과 어도, 생태수로 등을 설치해 수생태계 연속성을 확보했다.

시는 공사 완료 후 매년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4년 동안 모니터링한 결과 사업이전보다 하천수질은 약간 좋은 단계로 상승했으며, 식물과 동물상은 다양해져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오창 저수지를 중심으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이 조성되고 청원생명축제를 개최하는 등 주민 만족도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민경택 하천과장은 "용두천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하천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현재 무심천과 미호강에 대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자연친화적인 도시하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이장우 대전시장, 유성구민 목소리 들어... 상생협력 방안 모색

자치구 방문 마지막 행사, 유성구청소년수련관에서 주민 300여 명과 만나

이장우 대전시장이 민선 8기 첫 자치구 방문 마지막 행사인 유성구를 찾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2일 유성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정용래 유성구청장을 비롯한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장우 시장은 행사에 앞서 유성구 복합문화예술센터 조성 예정지를 방문해 유성구청장과 주민 의견을 들었다.

정용래 청장은 대전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시유지 사용 협조와 시비 지원을 건 의했다.

이에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와 자치구 이익 균형의 차원에서 공유재산 교환을 통해 시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시비 지원은 지방이양 전환사업 기준에 따라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방문을 마친 이 시장은 유성구 청소년수련관으로 이동해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용래 구청장은 유성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상향 및 통합 운영을 요청했고, 주민들은 유성구 보훈회관 건립 지원, 유성복합터미널 조속 추진, 안전 첨단국방 산업단지 조성, 환경시설 주변지역 공동이용시설 건립,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건설사업 조속 추진, 대전시립정신병

원 이전 등을 건 의했다.

이장우 시장은 유성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대해 "시에서도 자치구 재정 지원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향후 지원금 재조정 시 상향 지원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겠으며, 통합 운영에 대해서는 유성구의 사전 행정조치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자"

고 제안했다.

이어 유성구 보훈회관 건립은 현장에서 바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약속했으며, 유성복합터미널과 안전 첨단국방 산업단지,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시설 주변지역 공동이용 시설은 내년 상반기까지 토지 보상과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5년 하반기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대전시립정신병원은 주변 도시개발로 여건의 변화가 있는 만큼 신속 이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유성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이 많아 발전 가능성이 크다"며 "제2대덕연구단지 및 호국보훈파크 조성,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우주산업클러스터 등 민선 8기 핵심과제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월 7일 동구를 시작으로 민선 8기 첫 자치구 방문을 실시한 대전시는 행사에서 나온 주민의 의견을 대전시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 이다.

김원호/기자

진천군,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우수기관 선정

진천군은 전국 2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성가족부 주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각 서비스 기관을 도시, 도·농, 농촌으로 나눠 △아이돌봄 서비스 성과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아이돌봄비 확보 및 활동 참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인프라 등을 평가하고 있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대부분의 영역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농촌지역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총사자 및 아이돌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가

정의 아동을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보는 1:1 돌봄 서비스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업이다.

최만식/기자



천안흥타령춤축제2022, 직간접 경제파급효과 400억 원 성과

지난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천안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열린 '천안흥타령춤축제 2022'가 흥행에 성공해 86만 명의 방문객을 모으며 400억 원의 직·간접 경제파급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와 천안문화재단은 지난 30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자원봉사자, 유공기관, 축제참여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흥타령춤축제2022' 유공자 시상식과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축제 결과를 발표했다.

시상식과 평가보고회는 '천안흥타령춤축제2022'의 성공적 개최에 공헌한 자원봉사자 등 유공자들을 격려하고, 향후 흥타령춤축제 발전 방향과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한국문화관광포럼이 작성한 천안흥타령춤축제2022 축제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축제는 3년 만의 대면 축제 재개와 개최장소 변경이라는 변수에도 시민의 문화생활 향유권 신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한 축제였다고 분석했다.

축제평가 보고서는 축제 기간 332명을 대상으로 현장 면접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관람객 만족도 등을 담았다.

축제흥미성 등 10개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한 축제 만족도 분석에서는 5개 부문에서 7점 만점 5점 이상을 기록하는 등 관람객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를 이뤘다.

특히 '축제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항목에서 73.4%가 긍정적으로 답변해 올해 흥타령춤축제의 구성이 시민 친화적이었다고 알 수 있었다.

방문객의 경우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66.5%로 가장 많았으며,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즐기면서 여가를 즐기기 위해 축제장을 방문했다고 답했다.

개선이 필요한 부문으로는 체험프로그램 확대 및 공연프로그램의 질 향상, 먹거리·살거리의 강화, 많은 외부 방문객을 유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기됐다. 올해로 18회를 맞이한 천안흥타령



춤축제는 문화관광축제 총 8회, 6년 연속 지역대표공연예술제로 선정된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춤축제이자 공연예술제이다.

천안흥타령춤축제2022는 세계축제협회(IFEA WORLD)가 주최하는 세계축제올림픽인 '제16회 피너클 어워드(Pinnacle Awards)'에서 '2022년 올해의 축제 리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평가보고회에 이어진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도움을 준 자원봉사자, 유공기관, 단체, 공무원 등 유공자 9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시는 올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천안흥타령춤축제 2023'은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품격 있는 축제로 지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천안흥타령춤축제 2023'은 2023년 10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천안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정근/기자

경북도, 네이버클라우드와 지자체 최초 스마트농업 MOU체결

-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 영농 서비스 활성화 협력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일, 네이버 클라우드와 성주참외과채류 연구소에서 신융섭 경북도 농업기술원장, 류재준 네이버 클라우드 이사, 안은기 유비엔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경북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네이버 클라우드가 지방자치단체와 처음 체결하는 것으로 우선 참여에 대한 빅데이터 수집과 AI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경북은 전국에서 1위 농작물이 가장 많으며 그 중 참외는 주산지 성주에만 올해 5763억원의 사상 최대 조수익을 올려 지역에서는 생명과 같은 산업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코리아 멜론(Korea Melon)으로 명명한 한국을 대표하는 과일인 참외는 앞으로 다가올 기후위기와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수한 기술과 인프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농작물 영농관리

를 휴대폰과 같은 스마트 기기를 통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원은 AI 기반 스마트농업 서비스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위한 빅데이터 수집, 기술 보급 및 서비스 활용교육을 담당한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빅데이터 수집과 AI 영농 서비스를 위한 운영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AI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유비엔은 AI 기반 경북 스마트농업 서비스 개발과 운영을 맡을 예정이다.

또한, 네이버 클라우드는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의 계열사로 각 산업분야에 클라우드 기반의 맞춤형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스타트업(StartUp)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인프라,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유비엔은 시설원예 스마트팜, 센서 및 생육환경제어 시스템 개발과 농업 빅데이터 및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무선통신 기반의 스마트팜 시스템과 밀폐형 식물공장 제조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한편, 국내 스마트팜 보급률은 11.4% 수준에 지나지 않고 빅데이터, AI와 같은 경쟁력 있는 미래기술 개발에 시설 등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쉽게 진입할 수 없는 실정이지만, AI 서비스 인프라를 보유한 네이버 클라우드의 지원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과의 협력 강화로 쉽지 않았던 AI 영농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한 스마트팜 기술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보유한 IT 기업과 함께 AI와 같은 첨단기술을 이용한 작물별 맞춤형 솔루션을 농업인들이 편리하고 친근하게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첫 걸음을 내딛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더욱 협력을 강화해 첨단 농업 기술이 영농현장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대구·광주 의용소방대, 달빛동맹 화합의 장 열어

광주시 일원에서 90여 명 참여, 지역 화합과 상호 협력관계 강화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일(금), 광주시 일원에서 대구와 광주 의용소방대 9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달빛동맹' 교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구·광주 의용소방대 달빛동맹 교류행사는 지난 2015년 광주시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홍보를 위한 대구 방문이 계기가 되어 이듬해부터 대구와 광주로 무대를 옮겨가며 지역 화합을 다지고 의용소방대 상호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매년 진행해 올해 7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광주시 일원에서 국립 5·18

민주묘지, 5·18자유공원, 5·18민중화운동기록관, 전일빌딩 245 등 역사적 장소를 둘러보고 각 단체가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 공유와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봉희, 이점숙 대구시 의용소방대 남·여 연합회장은 "대구와 광주 의용소방대가 업무적인 협력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류를 통해 상호 화합과 우정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희망2023 나눔캠페인' 출범

- 따뜻한 사랑이 듬뿍 담긴 나눔 실천, 불우 이웃에 큰 힘 돼

청송군은 지난 2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희망2023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가졌다.

'희망2023 나눔캠페인'은 매해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시행하는 연말연시 불우 이웃돕기 집중 모금 활동으로,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먼저 희망 메시지 전달과 청송어린이집 원아들의 희망나눔 콘서트가 있었으며, 이어서 참석한 내빈들과 자원봉사단체의 성금전달로 진행되었다.

특히 해마다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는 청송군사랑의열매나눔

봉사단은 따뜻한 차 나눔 봉사활동을 펼치며, 따뜻한 사랑이 듬뿍 담긴 나눔 실천 캠페인 참여를 적극 홍보했다.

앞으로 2개월간 계속되는 '희망2023나눔캠페인' 성금 및 성품 접수는 청송군청 사회복지과와 읍·면사무소에서 하며, 비대면 QR코드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 실천이 소외되고 힘겨운 삶을 사는 많은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통영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컨설팅 용역 최종보고회

통영시, 데이터기반행정 미래를 설계하다

통영시는 지난 2일(금), 통영시청 1청사 회의실에서 조현준 부시장 외 데이터 분석 발굴과제 대상 부서장 및 팀장,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영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컨설팅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통영시 데이터기반행정의 역량을 진단하고, 통영시 특성에 맞는 데이터정책을 수립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책수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통합데이터서비스 체계 구축, 데이터기반 정책정보 생산·서비스, 데이터 활용지

원을 위한 협의체 마련, 데이터 활용 기반 행정역량 강화의 4개 전략 방향을 기반으로 향후 3년간 추진할 사업추진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또한, 6개 행정주제 데이터 마트 구축 및 행정활성화를 위한 21개 상시 분석과제, 16개 기획분석과제를 발표하고 경계 없는 상호협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로 나아가자고 뜻을 모았다.

통영시 윤병철 정보통신과장은 "향후 3년간 통영시의 데이터 정책을 이끌 로드맵을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 시민맞춤형 행정 실현, 지능형 시정 구현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준/기자



영덕군, '2022 사랑의 땀감 나누어주기' 행사 개최



영덕군 산림과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취약계층에 겨울철 난방용 연료를 제공하기 위해 사랑의 땀감 나누어주기 행사를 펼쳤다.

땀감은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수집단이 올해 2월부터 운영하는 숲 가꾸기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수집한 것으로, 독거노인과 생계지원 대상자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 50여 가구에 전달됐다.

사랑의 땀감 나누기 행사는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산림 부산물인 땀감을 이용함으로써 산물 인화 물질을 사전에 제거해 산물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김광영 영덕군수는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버려지는 산림 부산물이 사랑의 땀감으로 재탄생해 지역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며, "난방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구미시, 미래지향적 도시외교의 중심에 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12월 2일 오전 11시 구미시청 상강실에서 베트남 박닌성 다오 광 카이 부성장 일행을 맞이하고 상호 발전적 교류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0월 구미시 대표단이 한-베 수교 30주년을 맞아 베트남을 방문하여 응우옌 흐영 지양(NGUYỄN HUONG GIANG) 박닌성장과 면담, 박닌시와 우호도시협약 체결, 양 지역 경제교류회 개최 등을 통해 구미-박닌간 다방면에서의 실질적 교류협력 확대의 물꼬를 튼 것에 대한 후속으로 이루어졌다.

박닌성 대표단 환영식에는 구미시장,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 윤재호 상공회의소 회장 및 구미시 본청 국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닌성예이 구미에서 다시 뵈게 된 대표단을 환영하는 화기에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다오 광 카이 부성장의 구미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 30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경제통상, 외교안보,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과 마찬가지로 양국의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주도해온 구미시와 박닌성이 상호 파트너십 강화로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다오 광 카이 부성장은 구미시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는 뜻과 함께 구미시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대한민국 ICT기술의 중심지인 구미시와 국제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되어 기쁘게 생

각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구미시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반도체, 메타버스, 방산 기술 등에 박닌성이 협력하여 미래 신산업 발전 분야에서 상호발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환영식에 이어 오후 4시에는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기관단체장, 기업인 대표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박닌 양 지역 경제교류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본 교류회는 양 지역의 경제 현황, 공단 인프라 소개와 신산업 발굴 및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글로벌 경제협력의 장이 됐다.

경제교류회를 주최한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 경제교류회가 양 지역은 물론 양 국간 우호 증진과 기업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닌성 부성장 일행은 12월 3일 서울로 향한 뒤 한-베 수교30주년 기념행사 참석, 주한 베트남 대사관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12월 7일 귀국한다.

구미시는 금번 박닌성 부성장 일행의 방문으로 한국의 대(對)아세안정책에서 최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중점협력국인 베트남의 경제중심지인 박닌성과 경제, 산업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인적교류 등 전방위적 교류를 확대하고 내년에는 박닌성 우호의 정원에 구미시 상징물 설치 등 실질적 교류 추진으로 미래지향적 도시외교의 선도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봉원/기자



의성군, 2022 성탄트리 점등식 개최

- 성탄트리 점등, 내년 1월 8일까지 이어져
- 김주수 의성군수 "2023년 더욱 활기차고 행복한 의성군 기원해"

의성군은 지난 1일, 의성읍 복원회전교차로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다. 성탄트리는 우리 주변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한 위로를 나누고 희망과 축복의 불빛을 전파하기 위해 매년 복원회전교차로에 설치하고 12월 초 점등식을 개최하고 있다. 의성군이 주최하고 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김주수 의성군수를 비롯한 군의원,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찬송, 기도, 점등식 순으로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높이 12.5m의 대형트리와 채널간판, 포

토존 등을 설치하여 군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볼거리와 따뜻한 연말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장관을 이루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점등식을 통해 희망을 전달하는 희망 빛이 코로나로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여 내년에는 더욱 활기차고 행복한 의성군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트리 점등은 점등식 개최를 시작으로 내년 1월 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정금자기자



예천청단놀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한국의 탈춤'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되다!

예천군은 '예천청단놀음'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모로코 라바트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국가 및 도지정 무형문화재 18건으로 구성된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예천청단놀음'도 함께 포함됐다. '예천청단놀음'은 매년 고을의 안녕을 위해 예천읍에서 전승되어 온 한국에서 보기 드문 무언(無言) 탈놀이에 의해 강점 이후 축제 전통이 쇠락하면서 1934년을 마지막으로 전승이 중단됐었다. 이후 고(故) 강원희 선생을 비롯한

지역 내의 관계자들이 청단놀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조사를 시작했으며 1981년 복원된 후 지금까지 전승되어 오다 2017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초등학교생부터 70대에 이르는 회원들로 이루어진 '예천청단놀음보존회'는 매년 공개행사를 개최하며 청단놀음 가치를 알리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예천청단놀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는 군민 모두가 기뻐할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탈문화 발전과 청단놀음을 비롯한 예천군 무형문화재 위상을 높이고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안동, 신명나는 한국의 탈춤 한마당 열린다!

- 하회별신굿탈놀이, 예천청단놀음 등 4개의 한국의 탈춤이 모여 흥겨운 마당 펼쳐져
- 예부터 화합과 소통의 매개가 된 '한국의 탈춤' 진수 감상 기회

'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해 12월 3일과 4일 양일간 하회마을에서 한국의 탈춤 한마당 공연이 펼쳐진다. 전국 각 지방의 특성을 담아 언어와 춤으로 표현·전승된 '한국의 탈춤'의 유네스코 등재를 기념하고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관광객들과 함께 나누고자 마련됐다. 한국의 탈춤이 하회마을에 한데 모여 신명나는 가락 속에 풍자와 해학이 어우러진 전통 탈춤을 선보일 예정이다. 우선, 3일 오후 3시 만송정 숲에서는 하회별신굿탈놀이가 펼쳐진다. 하회마을 강변길을 따라 신명과 흥이 넘치는 길놀이 공연을 진행하고 부용대 절경과 울창하게 펼쳐진 만송정 소나무 숲을 배경으로 별신굿 한판을 벌일 예정이다. 4일에는 하회별신굿탈놀이 전수교육관에서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단이 주최하는 '한국의 탈춤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념행사'가 열려 탈춤 공연의 진수를 선보인다. 안동 하회마을 하회별신굿탈놀이



이전수교육관에서 12시부터 <강릉관노가면극>, 13시에 <속초사자놀이>, 14시에 <하회별신굿탈놀이>, 15시20분에 <예천청단놀음> 등 4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새롭게 등재됐다. 이로써, 안동시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유네스코 3대 카테고리를 석권하며 명실상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로 거듭나게 됐다. 그동안 안동시는 하회마을과 봉정사, 도산·병산서원 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유교책판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다. 시는 앞으로 문화재청과 세계유산추진단을 구성해 유네스코 유산 홍보와 활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 안동에서 한국의 탈춤이 세계인과 공감하는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된 것을 시민, 관광객들이 모두 함께 모여 축하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라며 "앞으로 안동이 품은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통해 세계유산이 지닌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영주 국제역 구축 전략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

- 영주가 국제철도 중심도시 되려면...국제역 구축전략 수립
- 타당성 검토 용역 통해 선도적 철도 중심도시 비상 발판 다져
- 국가 국제철도 및 권역별 국제역 사업 추진 선제적 대응 나서

영주시는 지난 2일 제2회의실에서 '영주 국제역 구축 전략 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송호준 부시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 한국철도공사 대경본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역 조성의 타당성 분석 결과와 향후 추진 전략에 대한 최종보고를 받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용역에서는 ▲국가철도·국제역 국가 계획·정책 및 동향 분석 ▲영주 국제역 구축 필요성 및 추진 방안 제시 ▲영주 국제역 조성 방안 및 타당성 검토 ▲영주 국제역 구축 전략 및 세부 추진 계획 제시 등을 통해 향후 영주 국제역 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용역수행기관인 (사)대중교통포럼

은 철도 여객·물류 현황과 국제 주요 철도 노선(TCR·TSR)에 따른 상대적 인 유·불리, 국제역 필수시설(CIQ, 세관·출입국·검역 시설) 조성비용 등을 감안한 영주역의 국제역으로서 경쟁력 분석을 기반으로, 향후 국가 국제철도 및 지역 권역별 국제역 사업 추진 방향에 따른 시의 대응 전략을 제안했다. 시는 이번 최종보고회 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영주역 국제역화와 관련 철도공단, 학계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국가 철도정책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송호준 영주부시장은 "용역을 통해 국제역 구축을 위한 로드맵과 추진 전략이 마련됨에 따라 장래 남북철도 연결로 맞이할 유라시아 철도 시대에 영주시가 철도 중심도시로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국토종합계획, 국가철도망계획, 국가물류계획 등 관련 정책 전반에 걸쳐 국제철도시대에 대

윤근수기자

대구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환경성질환 예방

- 취약계층가구 87개소 실내환경유해인자 진단 컨설팅 실시(22. 2 ~ 10월)
- 환경개선이 시급한 19가구 실내 환경개선공사 실시(22. 11 ~ 12월)

대구시는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사회공헌기업과 협력해 사회취약계층 거주 공간의 환경유해인자(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진단·컨설팅하고, 그중 환경개선이 시급한 가구에는 사회공헌기업으로부터 지원 받은 친환경 벽지·장판으로 실내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한다.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실내환경은 대부분 열악해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있어 일반인보다 더 많은 건강상 위해를 입거나, 아토피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등의 환경성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 2월부터 취약계층의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8개 구·군의 수요조사를 거쳐 환경개선이 시급한 장애인, 저소득,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가구 87개소의 환경성질환 진단·컨설팅을 실시했다. 환경성질환 진단·컨설팅은 환경부 위탁 전문 컨설팅 업체가 취약계층가구를 방문해 폼알데하이드, 미세먼

지,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등 총 6개 항목을 측정하게 되며, 환경유해인자 관리방법 및 측정 분석결과 설명과 환경성질환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컨설팅 결과를 참고해 실내 환경개선이 시급한 19가구에 취약계층 환경성질환예방 실내환경공사 시공사 공모를 거쳐 공사시공자를 선정 한 후 지난달 17일(목)부터 실내 환경개선공사(환경유해인자 진단·컨설팅 결과를 참고해 환경부 후원 사회공헌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친환경제품으로 대구시가 시공비 1천9백만원을 투입해 도배·장판교체 등의 실내 환경을 개선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권숙열 대구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성질환은 주거환경만 개선해도 관련 질병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다양한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으로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시정연설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 1일, 2023년도 예산안을 영덕군의회에 제출하는 시점에 맞춰 영덕군민들과 군의회 의원들께 시정연설을 통해 군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이에 본지 취재진은 아래와 같이 김광열 영덕군수의 시정연설 내용을 담아 왔다.

윤근수기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손덕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로운 시작과 함께했던 2022년도가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덕군의 발전과 균형 추진에 몰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영덕을 건설하는 데 함께 힘이 되어 주신 군의회 손덕수 의장님과 김성철, 김성호, 김은희, 김일규, 배재현, 신정희 의원님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292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민선 8기 첫 본예산인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설명과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야흐로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라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이제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코로나19 여파와 환경위기, 국제경제의 악화로 인해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악재가 겹쳐 국가경제 전반에서의 어려움은 물론, 서민들의 생활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유수의 경제전문가들이 현재의 한국 경제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상황과 비슷하거나 더 어려울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각종 공모와 보조사업, SOC사업 등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건전 재정으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인 지금, 전체예산 중 국·도비 의존이 80%를 차지하는 우리 군으로서 새로운 영덕을 설계하는 전략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저를 포함한 영덕군 600여 공직자는 지역의 미래와 다음세대의 비전을 위해 한마음이 되어 작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리라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힘차게 시작했던 민선 8기가 이제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40여 년의 공직생활을 통해 꿈꿨던 영덕의 청사진과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기반 작업들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내 결의 군수'는 군민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항상 행정이 답게 해야 한다는 제 소신이었습니다.

이에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군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지난 9월 조직 기구를 개편하였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을 신설하여 군민과의 소통 행정을 강화하고 군정홍보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분과하여 보다 세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처토록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행정부서와 지도부서를 분리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局) 제도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군수비서실을 군민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인구 3,000명 이하 6개 면의 면장실을 행복소통실로 탈바꿈시켜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군민과 직

접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이처럼 주민 밀착행정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조직개편에 협조해 주신 손덕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군민과의 약속인 46건의 공약사업은 군민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민배심위원단을 운영해 사업 방향을 구체화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과속방지턱, 가로등 설치 등 생활밀착형 사업은 우선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군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정의 최종 목표는 군민이 행복한 영덕」입니다.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는 군민이 웃을 수 있는 더 나은 영덕을 위해 힘 없이 달려왔습니다. 초강력 태풍 힌남노를 맞아 취약지구 사전점검과 해안저지대 토탄 쌓기 등 전 공직자와 함께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사전 대응을 펼쳐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9개월 동안 순회 간담회와 마을 경로당 방문 등 현장 속에서 군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이어가며 주민들이 주권자가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군민체육대회는 3년 만에 재개되어 굿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9개 읍·면 주민들이 화합하고 추억을 만든 성공적인 행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망과 연계한 지역 도로망 확충과 노인복지관 건립 등 당면한 현안 사업에 대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 병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등 전체 1,032억 원(이웃사촌 400, 풍수해 477, 해양레저항 20, 인구소멸대응기금 126, 곤충유통지원사업 2.4, 고령종합 5, 문화재야행 2)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에서도 소기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FS국제축구테마파크는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해 660억 원이 투자되고, 대규모 숙박시설을 갖춘 바이소호텔은 영덕이 동해안 최고의 해양관광도시로서의 명성에 걸맞은 '머무를 수 있는' 관광을 실현해 지역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2022년 해양쓰레기 우수사례 경진대회, 보건복지부의 건강증진사업과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환경부의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실태점검 평가 등 하반기에만 8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영덕군의 우수한 행정력과 위상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렸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군민과 의원님들이 함께 뜻을 모아 주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우리 군은 연간 천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명소입니다. 이는 청정해역과 푸른 숲을 두루 겸비한 통과 역사를 계승하고 있는 문화자원이 결합한 결과입니다. 여기

에 다양한 관광 아이템 개발, 광역교통망 확충, 관광서비스 개선 등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영덕은 바야흐로 동해안 최고의 관광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여세로 2023년에는 지역개발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군민의 안정적인 삶 지원,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어 영덕만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인구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 예산안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예산편성의 어려움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보다 16.5%(847억 원) 증가한 총 5,972억 원으로, 일반회계 5,692억 원, 특별회계 280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5,692억 원에는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 공공행정 및 공중질서, 안전과 교육 분야에 12.9%인 769억 원, 문화관광과 환경보호, 사회복지와 보건 등 삶의 질 향상에 40.5%인 2,421억 원, 농업·임업·해양수산, 산업·중공업 및 교통·물류, 국토·지역개발 등 경제 분야에 34.5%인 2,062억 원, 예비비와 기타분야에 12.1%인 7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80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에 224억 원, 기타특별회계에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으로 기업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세계적 불황에 의한 경제위기와 대내적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우려 속에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민자유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가 필수 불가결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국비 공모사업 추진과 인구감소지역 기반계획 수립 등 영덕군의 미래발전 전략을 확립하여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전략 수립 등을 통해 기업친화적인 영덕의 가치를 높여겠습니다.

또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를 조속히 준공하여 신재생에너지산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과 기술 선점에 의한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0억 원 규모의 스마트수산가공종합단지 유치와 제2로하스수산물공공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역 내 수산가공산업을 활성화하고, 2025년 천연자원, 그리고 유서 깊은 전통과 역사를 계승하고 있는 문화자원이 결합한 결과입니다. 여기

거리 산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 영덕의 도시경쟁력 향상과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영덕시장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는 내년에 70억 원을 배정하여 2024년 사업준공을 차질 없이 이뤄냄으로써 새롭게 부상하는 영덕군에 걸맞은 명품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 역시 내년 10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창업공간 51개소와 위계이선 공간을 조성하고,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사업과 함께 영해면에 새로운 러스틱 라이프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영덕 미래인재양성관, 영덕 통합공공도서관, 강구 건강활력센터, 예주 행복드림센터 등 대규모 생활SOC사업 역시 면밀히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색다른 문화관광으로 사람과 자본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천만 관광객의 도시 영덕군의 명성에 걸맞은 관광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지역의 대표 관광지인 블루로드 정비와 추가 코스 개설, 테마가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에 19억 원을 투입하여 대한민국 대표 둘레길의 명성을 확고히 하고, 축산 블루시티 조성사업을 블루로드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운영될 목재문화체험장, 도예문화체험장과 함께 산림레포츠단지, 에니메이션테마파크 등의 조속한 건립으로 다양한 체험관광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영덕의 호국정신과 힐링이 공존하는 호국문화복지 복합리조트 조성, 영덕형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테마관광 코스 개발 등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소외계층 없이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영덕'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마을회관과 경로당 시설보수, 읍·면 노인회 활동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편의 증진과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턴 80세 이상이 포함된 직계존속 3세대가 1년 이상 함께 거주하는 100여 가구를 선정하여 명절 효도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어촌뉴딜사업 등에도 151억 원을 배정하여 농어촌 공간 정비와 마을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농산어촌의 활력과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농기계와 기자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농어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스마트팜, 농업테마파크 조성 등 과학영농을 통해 미래 농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월·원지리 양수장 시설공사, 로하스특화농공단지 해수 공급, 산불 피해복구 조림사업 등 농림어업 환경개선사업

및 상수도 요금 감면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각 읍·면 보건소 건강활력센터 설치와 의료취약 지역 원격 협진사업을 통해 지역의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보강하고, 고위험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고령친화 헬스케어 사업, 아산재단 영덕병원 등 지역 내 의료기관 협업을 통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운영 등을 통해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북부권 닥터헬기 착륙장 설치와 응급의학과 전문의 배치 등을 통해 관내 응급의료체계를 구축·강화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는 영덕을 만들겠습니다. 병곡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비롯한 6곳의 자연재해 예방사업과 장사현을 포함한 4곳의 소하천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재난에 강한 영덕을 이룩하겠습니다.

넷째, 농산어촌의 고령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작금의 농산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농·임·어업의 예산을 올해보다 27.6% 증액하여 보다 살기 좋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어민들은 영농비와 원자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노령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 부족이 지속되면서 영농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데다 판로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수출의 품목을 확대하고 택배비, 포장재, 병충해 방제약제, 유류비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농어민 재해보험 및 안전보험 가입 확대 등으로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확대, 온라인플랫폼 대상 확대 등 유통체계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함으로써 우리 농·수·특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어촌뉴딜사업 등에도 151억 원을 배정하여 농어촌 공간 정비와 마을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농산어촌의 활력과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농기계와 기자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농어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스마트팜, 농업테마파크 조성 등 과학영농을 통해 미래 농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월·원지리 양수장 시설공사, 로하스특화농공단지 해수 공급, 산불 피해복구 조림사업 등 농림어업 환경개선사업

에도 전력을 다해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농산어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군민과의 소통 채널을 다양화하여 군정 참여를 보장하고 전략적인 지역정보를 통해 영덕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소통의 날을 운영하여 영덕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군민이 원하는 사항들을 미리 파악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영덕알리미 어플, 다채널 SNS 운영 등 군민 맞춤형 온라인 소통과 주민참여예산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등 오프라인 소통을 두루 강화해 군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테마별 홍보 영상을 기획·제작하여 관광 영덕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인구정책사업을 내실화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군은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체계적인 대응과 전략으로 국·도비 확보에 나서 총 526억 원의 사업비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휴양·관광도시 조성 및 청년창업 허브센터 조성은 새로운 인구 유입을 목표로 이뤄지며 이는 다가치 주거플랫폼 조성 등 13개 단위 사업으로 실현되어 내년부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해당 사업의 인구 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사업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강력한 무기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 환경 속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종의 낡은 방식은 버리고 과감한 도전과 변화로 희망을 애기하는 영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영덕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한정된 재원으로 심사숙고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모쪼록 세심히 살펴봐 주시고, 계획된 주요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영덕군의 600여 공직자는 군민과 함께 내일이 기대되는 새로운 영덕을 위해 가시 발길을 마다하지 않고 한 발 더 나가겠습니다. 군민과 군의회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로운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

영덕군수 김 광 열



에도 전력을 다해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농산어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군민과의 소통 채널을 다양화하여 군정 참여를 보장하고 전략적인 지역정보를 통해 영덕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소통의 날을 운영하여 영덕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군민이 원하는 사항들을 미리 파악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영덕알리미 어플, 다채널 SNS 운영 등 군민 맞춤형 온라인 소통과 주민참여예산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등 오프라인 소통을 두루 강화해 군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테마별 홍보 영상을 기획·제작하여 관광 영덕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인구정책사업을 내실화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군은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체계적인 대응과 전략으로 국·도비 확보에 나서 총 526억 원의 사업비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휴양·관광도시 조성 및 청년창업 허브센터 조성은 새로운 인구 유입을 목표로 이뤄지며 이는 다가치 주거플랫폼 조성 등 13개 단위 사업으로 실현되어 내년부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해당 사업의 인구 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사업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강력한 무기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 환경 속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종의 낡은 방식은 버리고 과감한 도전과 변화로 희망을 애기하는 영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영덕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한정된 재원으로 심사숙고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모쪼록 세심히 살펴봐 주시고, 계획된 주요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영덕군의 600여 공직자는 군민과 함께 내일이 기대되는 새로운 영덕을 위해 가시 발길을 마다하지 않고 한 발 더 나가겠습니다. 군민과 군의회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로운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

영덕군수 김 광 열

(사)대한노인회영양군지회 부설 노인대학 제37기 졸업식

나도 대학생! 오늘은 학사모 쓰고 졸업하는 날

(사)대한노인회영양군지회는 지난 2일, 영양군종합복지회관 강당에서 지난 6월 입학식을 시작으로 5개월간 교양, 건강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 과정을 모두 수료한 부설 노인대학 제37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부설 노인대학 제37기 졸업식이 2일 개최됐다. 지난 6월 입학식을 시작으로 5개월간 교양, 건강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 과정을 모두 수료한 45명이 이날 졸업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날 45명의 노인대학 제37기 졸업식에는 한승환 영양부군수를 비롯, 김석현 영양군의회 의장, 대한노인회영양군지회 임원, 읍면분회장, 교육위원, 졸업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대한노인회영양군지회가 주관한 이날 졸업식은 "우리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노인강령 낭독

을 시작으로 45명의 졸업생에게 ▲ 졸업장 수여, ▲7명의 개근상, 5명의 정근상, 2명의 노력상 시상 이어졌으며, ▲1년 동안 고생하신 박성길 대학장을 위한 학생들의 꽃다발 전달로 졸업식은 훈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박성길 학장의 졸업 기념사, ▲안재범 지회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한승환 부군수는 "영양군 발전의 주축이신 어르신들의 노인대학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며 "배움에는 때가 없다. 노인대학 과정을 통해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시길 바란다"며 존경과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한편, 올해로 제37기를 맞은 (사)대한노인회영양군지회 부설 노인대학은 1984년 개설됐으며, 지금까지 1,8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오고 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여름철 태풍·호우 대응 '최우수 지자체' 선정!

- 2022년 여름철 태풍·호우 사전대비 및 대책추진 우수 지자체 평가

행안부 「2022년 여름철 태풍·호우 사전대비 및 대책추진 평가」에서 부산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 상 사업비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원 확보

박형준 시장,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22년 여름철 태풍·호우 사전대비 및 대책추진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상 사업비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올해 '여름철 태풍·호우 사전대비 및 대책추진' 기간(3.15~10.15) 전국 지자체의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추진실적을 종합해 평가한 것으로, 부산시는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이번 성과가 여름철 태풍·호우 사전대비 및 대책추진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며, 시민이 안전한 '안전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박형준 시장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여름철 태풍·호우에 대비해 ▲ 재난 대응체계 강화 ▲ 풍수해 매뉴얼 정비·개정 ▲ 재난 대응 자동화 시스템(하천변, 둔치주차장 등) 설치 ▲ 재해우려지역 재정비 등 빈틈없고 철저한 사전대비를 했다.

또, 부산에 상륙한 제11호 태풍 '힌남노'와 연이어 영향권에 들었던 '남마돌'에 대응해 ▲ 차량 대피를 위한 학교 운동장 개방 ▲ 선제적 주민 대피 ▲ 마린시티 등 재해우려지역 통제 ▲ 단체 소통방 운영 등 선제적인 대책을 추진해 인명피해 '제로화'를 실현했다. 특히,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운동장

을 차량 대피를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한 것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돼 소개되기도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시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협조해주셨기에 가능했던 결과다."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재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예방'보다 좋은 대책이 없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 소방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인명피해 예방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송중진기자

봉화군,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한 읍면 세무담당 직원 업무연찬 가져

개정 법령 해석, 의견 청취 등 개별주택가격 산정 준비 철저

봉화군은 지난 1일 봉화군청 북카페에서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2023년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관련 연찬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내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를 원활히 추진해 군민의 납세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연찬에서는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 기초자료 조사와 입력에 꼭 필요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한 법령 해석과 부동산공부시스템 사용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어졌다.

또한, 읍면 담당자들은 서로의 민원응대 경험과 업무 지식을 나누면서 세정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로서도 큰 의미를 더했다.

권민기 재정과장은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현장조사와 자료 관리 등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업무 추진을 통해 신뢰 행정과 건전 세정 구현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달성군, 대구시 '2022년도 도시녹화사업 평가' 최우수 선정 영예

달성군은 지난 2일 대구시가 주관한 '2022년도 도시녹화사업 평가'에서 8개 구·군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세계적인 숲의 도시(GREEN CITY)'를 만들겠다는 대구시 녹지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8개 구·군의 푸른 대구 가꾸기 사업과 조경지 및 가로수 관리, 가로환경 개선사업, 옥상녹화사업 등 도시녹화사업 전반에 걸쳐 평가가 진행됐다.

달성군은 다사 세천리 테마정원 조성, 논공 꽃단지 조성 등 아름다운 도시경관 연출 및 미세먼지 차단숲, 자녀안심 그린숲, 스마트가든 등 전 분야에서 고른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올해는 기존의 관 주도 사업방식을 탈피해 주민들이 마을의 경관과 환경 개선에 직접 참여하는 한평정원

가꾸기, 꽃피는 마을 조성 등 주민 참여형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우수한 평가를 얻었다.

그리고 매년 100여 곳이 조성되는 학교숲을 대상으로 산림청이 주관하는 '2022년 학교숲 우수사례' 공모에서도 논공을 북동초등학교가 전국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12월 7일 산림청 '도시숲 정책 워크숍'에서 수상하는 등 달성군의 녹지정책 전반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며 전국 최고 수준임을 인정받았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푸른 달성, 꽃피는 달성, 주민과 함께하는 녹지 공간 창출 등 달성군만의 특색 있고 아름다운 녹지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외국인 근로자 '사랑의 겨울옷 나누기' 특별 창구 운영

- 강동면행정복지센터, 이달 29일까지 운영해 - '나눔은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



경주시 강동면행정복지센터는 이달 29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사랑의 겨울옷 나누기' 운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랑의 겨울옷 나누기는 겨울한파가 익숙지 않은 외국인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입지 않는 의류를 기증받아 전하는 나눔 운동이다.

창구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및 편의를 위해 행정복지센터 1층 로비에 마련됐다. 기증에 참여한 주민들은 감사의 마음이 담긴 예쁜 꽃씨 1봉지를 받을 수 있다.

기부받은 물품은 매주 경주시종합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외국인 대상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유금2리 주민 한 주민은 "한두 번밖에 입지 않는 패딩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던 차에 강동면행정복지센터 로비에 사랑의 겨울옷 나누기 창구가 마련된 것을 보고 기부하게 됐다"며 "행복이란 메시지가 담긴 꽃씨로 감사의 인사를 받으니 나눔은 비워지는 게 아니라 채워짐을 몸소 체험하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광락 강동면장은 "나눔 운동을 통해 외국인 이웃들이 다가오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길 바라며 주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윤태용기자

'빛솔합창단' 제30회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 금상 수상

노래로 꿈을 그려 가는 대구시 특수학급 연합 '빛솔합창단'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일(금), 대구지역 특수학급 연합팀인 '빛솔합창단'이 제30회 세계장애인의 날 기념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에서 금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와 세종특별자치시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UN이 지정한 세계장애인의 날(매년 12월 3일)을 기념해 장애인 합창의 예술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노래로 하나 되는 화합의 장으로, 전국 각 시도를 대표하는 16개 팀이 출전했다.

빛솔합창단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는 장애인·비장애 모든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나누고자 '흰 수염 고래'와 '나는 나비'를 편곡하여 감동을 주는 가사와 아름다운 화음으로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빛솔합창단은 경북여고, 서부고, 매향고 특수학급에 소속된 학생 20명

으로 구성된 대구지역 특수학급 연합팀으로,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대구 청소년 문화의 집에 모여 지휘자 선생님과 함께 꾸준히 연습을 진행해왔다. 2014년부터 특수학급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빛솔합창단'은 지난해에 열린 제29회 대회에서는 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빛솔합창단의 단원인 매천고 박근범 학생은 "빛솔합창단의 경험이 고등학교 3년간의 시간으로 그치지 않고 성인이 되어도 꿈과 희망을 노래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연습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루어낸 결과이기에 모두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화음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합창단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포스코 노동조합 제18·19대 위원장 이취임식”



**제18대 김경석위원장
이임, 제19대 김성호
위원장 취임**

**세계 1위 철강기업의
노동조합 위원장 다운
면모 과시해**

취 임 사

존경하는 포스코 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스코노동조합 19대 위원장 김성호입니다.

2022년 12월 1일, 변화를 갈망하는 8천조합원 여러분의 부름으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먼저 오늘 자리를 빛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위해 바쁘신 와중에 먼 길을 해주신 귀빈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 조합의 발전을 위해 지난 2년간 노력해 주신 김경석 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친애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 포스코 노동조합은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국민기업이자 세계 1위의 철강기업인 포스코의 대표 노동조합입니다.

우리 포스코 노동조합은 「기업 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직계는 철강 사회와의 관계를, 나아가서는 절강 노동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대유행과 냉전법lam으로 인한 수해복구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비가 온 뒤 땅이 굳듯이 위기는 곧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포스코 노동조합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포스코 노동자가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포스코 노동조합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계 1위의 철강기업에 걸맞은 포스코 노동자의 위상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둘째, 우리의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단협안을 마련하고 임단협들의 승리로 포스코인의 자부심을 되찾겠습니다.

셋째, 투명하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운영을 위해 조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대의원 중심으로 소통하고, 홍보하여 항상 조합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8천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 19대 포스코 노동조합 집행부는 12월 1일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조합원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우리들은 법과 상식을 기반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 할 것이며 조합원이 주신 권리 위에 잠자지 않겠습니다.

포스코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봅시다! 우리 함께, 이뤄냅시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1일
포스코 노동조합 위원장 김 성 호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12월 1일 오후 2시, 경북 포항시 티파니웨딩 5층 컨벤션 홀에서 주요 외빈들과 포스코 관계자, 노조원들 포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19대 포스코 노동조합 위원장 이취임식을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날, 이 취임식에는 포스코 관계자와 포항시 일자리정책팀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외 포스코 그룹사 위원장 등 많은 외빈이 참석해 주었고,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병우 국회부의장, 서동용, 김희재 국회의원은 축하 영상을,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병욱, 김정재, 김형동, 박대수 국회의원이 축전을 보내어 제18·19대 포스코 노동조합 위원장의 이취임을 축하해 줬다.

이취임식 행사는 포스코 노동조합 영상을 시청, 개회사, 국민리례, 주요내외빈 소개, 취임노동조합위원장 약력 소개, 이취임자 인수인계식, 이임노동조합위원장 기념패 전달, 이임위원장 고별인사, 포항시장 축하대독, 포스코대표이사 축사, 취임노동조합 위원장 취임사에 폐회사, 기념사진 촬영,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임하시는 제18대 김경석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2년 간 조합원 여러분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다. 제19대 집행부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이 역경을 잘 이겨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호 제19대노동조합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조합은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국민기업이자 세계 1위의 철강기업인 포스코의 대표 노동조합으로써 우리는 기업 내만 국한되지 않고 작게는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나아가서는 절강 노동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저는 앞으로 세계 1위의 철강기업에 걸맞은 포스코 노동자의 위상을 회복하고, 우리의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단협안을 마련, 임단협들의 승리로 포스코인의 자부심을 되찾으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조합 운영을 위해 조합의 모든 일을 대의원 중심으로 소통, 홍보해 항상 조

합원과 함께는 위원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혀 세계 1위 철강기업의 노동조합 위원장 다운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었다.

이번에 제19대 포스코노동조합 위원장에 취임한 김성호 위원장은 1975년 4월 14일, 포항에서 태어나 포항 세명고, 동국대 법학과 학사, 서울 동국대 노동법, 회사법 석사과정을 수료 했고, 1997년 포스코에 입사한 이래 25년을 근무해 왔으며, 그의 가족관계는 가족과 자녀 1명이 현재 포항시 남구 구정리에 살고 있다.

그의 노동조합을 위한 열정적인 노력은 그가 걸어온 노동조합 관련 이력에서 하나하나 깊은 애정이 묻어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그는 지난 2018년 제8대 포스코 노경협의회 근로자 위원, 제8대 포항제철소 노경협의회 대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제9대 포스코 노경협의회 근로자 위원에 재선돼, 포스코 직원들의 지지를 확인했고, 법학 학사, 석사 과정을 수료한 노동법 전문가로 지난 2022년 10월 26일에 변화를 갈망하는 8,000 여조합원들의 부름을 받고 포스코 노동조합 제19대 집행부 위원장 선거에서 52%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그는 소감에서 “포스코노동조합을 무엇보다 신성한 감동을 주시길 위해 회사에 큰 도움이 되는 조합이 되어야지 회사에 누를 끼치는 노동조합은 결코 만들지 않겠다”는 진솔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진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참노동상’을 가진 분이었다.

또한, 그는 “포스코를 세계속의 기업으로서 더욱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어 취재간 솔직히 노조에 대한 사회적 선입관이 그리 좋지 않았는데, 그의 노조관을 듣고서 그동안 편견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짐을 감출 수 없었고, 왜 그가 8000여 포스코 노동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았는지를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

한편, 이처럼 세계적 기업인 포스코 노동조합은 34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포스코 노동조합의 포항본사는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13번길

15-15에, 광양본사는 전남 광양시 백운로 1638-11지에 위치해 있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1988. 6.29 설립신고(포스코 창립일 1965) ▲1990. 7.27 포스코 3대 백군기위원장 당선 ▲2018.9.13. 비상대책위원회출범, 집행부 총사퇴 ▲2018.11.6. 제17대 위원장 선거,김인철 위원장 당선 ▲2020.11.11. 제18대 김경석위원장 당선 ▲지난 2022.10.26.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의 김성호 위원장이 제 19대 포스코 노동위원장에 당선됐으며, ▲12월 1일부터 취임식을 갖고 이날부터 8천여 조합원의 리더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됐다.

이에 본지는 이번에 제19대 포스코 노동조합위원장에 취임하는 김성호위원장의 취임사를 담아봤다.

이번 제18·19대 포스코 노동조합 위원장 이취임식은 지금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자칫, “국가안락, 경제안락”으로 한국 경제는 물론, 시민들

의 불편함이 극에 달하는 현시점에서 포스코 노동조합의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해 포스코 관련 주식들이 폭등하는 선순환을 이끌어 내는 등, ‘사회기업 모범의 근간’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 이번 포스코노동조합 이취임식의 의미를 한층더 뜻 깊게 해줬다.

이에, 취재진은 포스코 노동조합의 이와같은 건설적인 역할은 대한민국의 운명과 직결되는 참다운 미래지향적 사고로써 높이 평가를 받아 마땅한 것인 바, 타 기업들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으로 여겨진다.

끝으로, 이 지면을 빌어 다시한번 이임하시는 김경석 전 위원장과 취임하시는 김성호 위원장의 가정에 화목과 건강을 기원드리며, 8,000여 포스코 노동조합원들의 마음과 마음속에 ‘해피바이러스(Happy virus)’가 충만하기를 기원드린다.

윤근수/기자



용인문화재단, 뮤지컬 '장수탕 선녀님' 공연

백희나 작가의 동명 그림책 『장수탕 선녀님』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공연

(재)용인문화재단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여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총 6회에 걸쳐 용인포은아트홀에서 뮤지컬 '장수탕 선녀님'을 선보인다.

뮤지컬 '장수탕 선녀님'은 2020년 한국인 최초로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문학상을 수상한 백희나 작가의 동명 그림책 『장수탕 선녀님』을 원작으로 한 공연으로, 2022년 인터파크 티켓 아동/가족 부문 연간 랭킹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기 뮤지컬이기도 하다.

이번 공연에서는 오래된 목욕탕에

서 펼쳐지는 선녀 할머니와 덕지의 가슴 따뜻하고 웃음 가득한 판타지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사랑 가득한 연말을 선사할 예정이다.

뮤지컬 '장수탕 선녀님'은 24개월 이상 관람가로 공연은 총 60분간 진행된다. 티켓은 1층 덕지석 6만원, 2층 선녀석 5만원으로 10일까지 예매 시 35% 조기예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연 티켓 예매는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티켓링크에서 가능하다.

조혜영/기자



경기문화재단, 팝업갤러리《업클로즈04》개최...

미술을 통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마음을 나눈다.

- ◎ 오는 12월 5일부터 2주간 을지로 하나은행 하트원(H.art1)에서 팝업갤러리 《업클로즈04》 개최
- ◎ 개방형 수장고 콘셉트로 회화, 조각, 미디어 아트 작품을 '좀 더 가까이, 다양한 각도'로 조명
- ◎ 오프라인 전시와 연계한 3D 온라인 플랫폼 'artbuy.org'로 프로모션 강화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경기지역 시각예술작가 발굴과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2년 경기미술품 활성화 사업(이하 아트경기)'의 일환으로 팝업갤러리 《업클로즈04》 전시를 오는 12월 5일(월)부터 12월 18일(일)까지 을지로 하나은행 하트원(H.art1)에서 개최한다.

올해 네 번째를 맞이한 팝업갤러리 《업클로즈04》는 협력사 아트플레이스(대표 홍소미)의 기획으로 2022년 아트경기 작가 20인과 추천작가 8인이 참여, 총 220점의 미술품을 소개하는 대규모 전시로 진행된다.

전시 제목 '업클로즈(UPCLOSE)'는 '가까이 다가가기'라는 실천적 의미를 통해 물리적인 질감부터 그 뒤에 숨겨진 예술철학까지 작품이 가진 아날로그 가치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난 11월 초 하나은행이 새롭게 조성한 전시장 하트원(H.art1)은 미술품을 더 가까이, 다양한 각도로 감상할 수 있는 개방형 미술품 수장고

전시 콘셉트를 제안하며 '업클로즈' 전시의 의미를 더한다.

이번 전시는 오프라인의 전시 공간과 작품을 섬세하게 구현한 온라인 3D 전시 플랫폼 '아트바이 artbuy.org'를 함께 오픈하여 관람객에게 몰입감을 선사하고, 시공간의 경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작품을 감상하고 구입할 수 있는 예술적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대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을 마련, 작가들에게 평론가, 큐레이터 등 전문 미술인과의 1:1 매칭 크리틱을 제공한다. 올해는 미술평론가 임근준, 베니스 비엔날레 감독을 역임한 이대형(에이치존 대표) 등이 멘토로 참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트경기(artgg.ggcf.kr)와 경기문화재단(ggcf.kr), ART BUY(artbuy.org)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경기문화재단 예술진흥실 031-231-7237~8

조혜영/기자



"2022 강원디자인페스타" 개최



강원도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 강원디자인페스타'가 12월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 강원디자인진흥원 전시장(1층~2층)에서 개최된다.

진흥원 설립(20. 10.)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강원도 디자인 산업 육성을 위해 진흥원이 걸여온 발자취, 사업성과와 함께 새롭게 다가오는 특별자치시대를 향한 힘찬 출발을 담은 "READY, SET, START!"를 주제로 펼쳐진다.

강원도 디자인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 및 가치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강원도 디자인산업의 미래를 시작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12월 1일 15시에 진흥원 전시장 2층에서 강원도지사(김진태), 강원도의회 의장(권혁열) 및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기철) 소속 도의원, 도내 유관기관장과 함께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김현선 회장, 디자인하우스이영혜 대표, 한국디자인산업협회 안정원 회장 등 디자인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막식을 개최했다.

【디자인 전시관】

전시장 구성은 행사 주제인 "READY, SET, START!"에 3개의 테마관을 구성 운영한다.

먼저, "READY" 테마관은 2020년 개원 이후 강원디자인진흥원의 활동 내역과 추진성과, 강원디자인페스타 E(Event Identity) 및 주제를 소개한다.

이어, "SET" 테마관은 어워드관, 비즈니스관, 국제전시관, 스토어관으로 구성되어 어워드관은 강원디자인전람회(공모전)와 우수디자인 상품 수상 등 23점 전시하여 우수 작품 홍보 및 관람객에게 새로운 영감과 상품화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비즈니스관은 진흥원이 추진한 디자인사업화기반구축, 작은기업 애로 해결지원 사업 등 기업지원 사업의 결과물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국제 전시관은 우루과이 일러스트레이션 수상작을 초청 전시한다.

마지막으로 스토어관은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지역디자인너들의 굿즈 상품을 전시·홍보한다.

마지막 "START" 테마관은 내년 6월 새롭게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관을 마련하여 특별자치도 지정을 위한 노력과 과정을 소개한다.

【강원디자인전람회 시상식】

이번 개막식 행사에서는 올해 진흥원이 처음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고 많은 관심과 참여로 총 1,414건이 접수된 '제1회 강원디자인전람회' 시상식도 개최됐다.

(강원디자인전람회) 우수 디자이너를 발굴하고 디자인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개최된 이번 전람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대상)으로 '움직이는 양봉 모바일티', 강원도지사상(금상)으로 ①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캐릭터(비상이와 수리), ② 품안의 소화과정을 토끼 일러스트로 표현한 '레빗저스'이 선정됐다.

이번 전람회 수상작들에 대해서는 시상과 함께 2022 강원디자인페스타 어워드 전시관을 활용한 전시 및 홍보 기회를 제공한다.

강원도지사는 "새롭게 시작하는 특별자치도와 함께 공공디자인 분야 육성을 통한 강원특별자치도 브랜드 형성, 강원도 관광 산업 및 특화산업 등에 대한 디자인 지원으로 지역 기업과 산업 발전을 돕겠다"고 밝혔다.

진흥원 최인숙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강원도 디자인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디자인 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내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새로운 강원도형 디자인 산업 생태계를 마련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2022 삼척동해왕이사부축제, 12월9일 개막

4년만의 모두가 하나 되는 역사문화예술 대축제

우산국을 정벌한 이사부 장군의 개혁정신을 기리고 동해바다를 수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삼척동해왕이사부축제'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이사부광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사부 다시 출정"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이후 열리는 대면 행사로 개막식 축하공연, 다양한 전시 및 체험행사를 비롯해 각종 대회 및 공개방송, 지역단체 공연, 이사부 가요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져 시민 화합과 소통의 한 마당 축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축제 개막에 앞서 이사부 장군의 진취적인 해양 정신을 기리는 '이사부 숭모제'가 오는 9일 오전 10시 오분향 이사부 출항지 기념비에서 삼척문화원 주관으로 열린다.

특히, 오는 9일 개막식에는 송가인, 신문희, 김다나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공연, 불꽃놀이 등 공식행사를 시작으로 10일 이사부 장군을 주제로 삼척시장, 삼척시의회 의장과 함께 강진, 박상철, 박해신, 천명훈 등이 출연하는 TV/라디오 공개방송이 진행되고, 아울러 생활 속 수준 높은 지역예술인이 참여하는 '이사부 예술단' 공연이 오는 11일 이사부광장 특설무대에서 무용, 사물놀이 등을 선보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입장객에게 팔찌를 배부하여 행사장 입장객 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구역별 안전요원 배치로 수용 인원 초과 시 분산 유도 및 입장 통제를 실시한다. 아울러 관람객 추위 노출에 대비하여 행사장 내 난방기구를 배치하고 방한용품 나눠주어 방한대비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제2회를 맞이하는 온라인 공모전(이사부 사자탈 만들기)과 행사장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스템프 투어(스템프 달성 시 기념품 증정), 다양한 전시·체험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삼척시 홍보와 더불어 축제의 참여도를 높인다. 특히 온라인 공모전인 이사부 사자탈 만들기는 전국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5일까지 참가 접수를 받아 시상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이사부 장군의 얼을 계승하고 범국민적 독도 수호 의지를 한층 높이는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문화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사전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동원/기자



통영시, 문화재를 배경으로 은하수 아래에서 펼쳐지는 야간공연 진행

(재)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은 오는 12월 3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백화당에서 미래의 빛, '통영 세병관' 야간 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문화재 문턱은 낮게, 프로그램 품격은 높게, 국민 행복은 크게'라는 슬로건을 걸고, 남녀노소 누구나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각 지역의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그 안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와 의미들을 담아낸 문화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6년차를 맞이하는 생생문화재 통영 이순신학교 프로그램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를 답사하고, 문화유산에 남겨져 있는 이순신 장군의 얼을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하여 관광객과 지역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으며, 2019년부터는 야간형 프로그램 미래의 빛, '통영 세병관'을 기획·운영하여 문화재의 숨겨진 진면목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번 미래의 빛, '통영 세병관'에서는 사적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백화당을 무대로 하여 3일에는 경남첼리스트 앙상블의 첼로, 피아노, 퍼쿠션, 우쿨렐레 앙상을 연주와 브이브라스의 금관 오중주 공연, 소프라노(백향미)와 베이스(남용현)의 성악 공연이 진행된다. 10일에는 브이브라스의 금관 오중주 공연, 소프라노(백향미)와 테너(김화수)의 성악 공연, 경남프리모앙상블의 남성중창단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류태수 대표이사는 "연말을 맞이하여 클래식 공연을 문화재에서 진행함으로써 기존의 딱딱하고 어려운 전통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친근하고 익숙한 문화재로 통영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가가는 기회가 되고자 한다.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생생문화재-미래의 빛, '통영 세병관' 공연 일정과 내용은 (재)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준/기자



영양 들어다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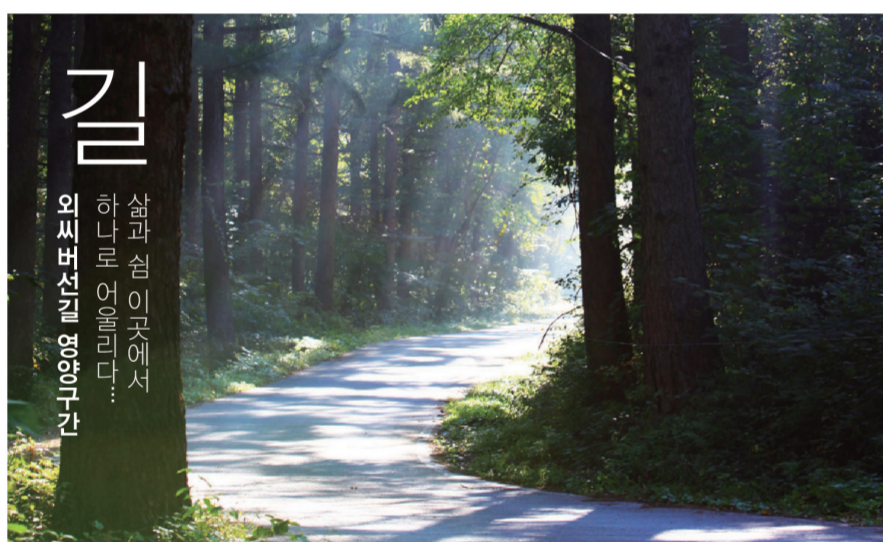
영양군
YEONGYANG-GUN
www.yyg.go.kr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머칠 목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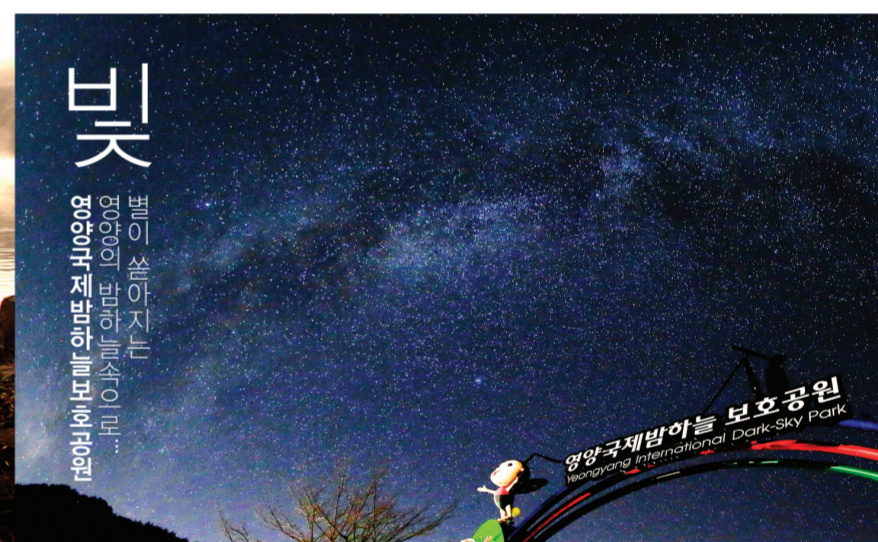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길
삶과 숨이곳에서
아름답게 영예롭고
역사적으로 영영하는



물
영양의 푸른빛이
영양에 영영하는
영영하는 영영하는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의 밤하늘이
영영하는 영영하는



얼
시공간의 대가
영양서적지



맛
사백년 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양연서정



숲
한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